

KLPGA members

2016
vol.44
OCTOBER

10



커버스토리
새로운 메이저 퀸의 탄생, 배선우를 만나다

라이징스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다, 지주현 인터뷰

특집기사
'메이저 대회'의 모든 것

별들의 그날
세계 정상에 올라서기까지, 이미나 프로의 투어이야기



LEEDONGSOO SPORT

꿈의 소풍 필드로 떠나는 행복나들이

넓게 펼쳐진 푸른 필드에서 아이는 꿈을 꿈니다
KLPGA가 그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아마추어대회 개최 등을 통해 앞으로 KLPGA를 이끌어갈 골프 꿈나무들이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대한민국 골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KLPGA
with YOU

MIMOS

THE ULTIMATE BEAUTY CARE PRODUCT

PERFECT MAKE-UP

두/드/리/면/
아름다움의 길이
열립니다.

보습/영양/자외선 차단이 하루종일 지속됩니다.
메이크업 제품이 얇고 균일하게 발라집니다.

라운드전

썬크림을 완벽하게
발라주는
Patting Master

골프장 활용 TIP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Patting Master



Tango



Rumba



Jive

ABSOLUTE CLEANSING

단 1분에 완벽한 클렌징을 원하세요?
기술로 채워지는 아름다움
피부를 깨우는 시간
“60초”

깨끗한 피부와 건강한 두피를 위한 2IN1 SYSTEM Cleansing Master



Cantata



Bolero



Cello



Chorus

골프장 활용 TIP

라운드후

완벽한 클렌징과
두피 스트레스 회복은
Cleansing Master

MIMOS

THE ULTIMATE BEAUTY CARE PRODUCT



Contents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6년 10월호



Section 01 KLPGA & Tour

- 06 멤버십 서비스
회원 혜택과 회원 동정
- 12 투어스케줄
2016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 스케줄
- 16 투어프리뷰
미리 둘러보는 10월 KLPGA투어
- 18 KLPGA 뉴스
KLPGA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
- 19 투어뉴스
KLPGA투어 소식
- 24 베스트포토
박준석 공식사진기자가 뽑은
KLPGA투어 베스트 명장면

Section 02 People & Story

- 26 커비스토리
새로운 메이저 권의 탄생,
배선우를 만나다
- 30 라이징스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다
지주현 인터뷰
- 32 특집기사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 하는
'메이저 대회'의 모든 것
- 36 별들의 그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2002시즌 상금왕, 이미나 프로 인터뷰
- 40 필드나들이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Section 03 Life & Communication

- 44 명예기자 뉴스를
① 챔피언의 우승 DNA를 말하다
② 객원 마케터, 현장에서 마케팅을 경험하다!
- 49 문화살롱
사랑이는 내 마음의
'가을 감성'을 녹여줘!
- 50 핏 트레이닝
골프 동작별 사용되는 근육과 척추 예방 운동 I
- 52 머니트렌드
절세 혜택이 큰 '연금저축하기'
- 54 사랑우체통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예쁜 딸에게,
오지현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
- 56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패션 트렌드
- 56 틀린그림찾기

Cover Story



표지이야기

10월의 탄생화 품폰국화의 꽃말은 '진실'입니다.
올시즌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배선우 프로,
'노력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 있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배선우 프로에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승승장구할 배선우 프로를 응원합니다.

발행일 : 2016년 9월 25일 VOL.44호 **발행인** : 강춘자
발행처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대치동) 송석빌딩 8층
TEL : 02-587-2929 **FAX** : 02-539-6003
홈페이지 : www.klpga.com
기획·디자인 : (주)디자인페이지(02-324-9422)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6	27	28	29	30	1	2
					←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솔모로) →	
3	4	5	6	7	8	9
	←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6차전 With LEXUS (무안) →					
	←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2016 (중고등부) (군산) →			← 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블루헤런) →		
				← KLPGA 2016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5차전 (그랜드) →		
				←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2016 (초등부) (군산) →		
10	11	12	13	14	15	16
← 2016 KLPGA 자선골프대회 (이스트밸리) →		←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7차전 With LEXUS (무안) →		←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스카이 72) →		
17	18	19	20	21	22	23
← KLPGA 2016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 (그랜드) →		←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 With LEXUS (무안) →		←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레이크우드) →		
24/31	25	26	27	28	29	30
←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9차전 With LEXUS (무안) →		← KLPGA 2016 정회원 선발전 (백제 컨트리클럽) →				
← KLPGA 2016 동아회원권 챔피언스 오픈 9차전 (블루원 상주) →			← 혼마골프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드림파크) →			

member's service

회 / 원 / 해 / 택

무주안성 컨트리클럽

혜택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 / 정회원 간 2인 플레이 가능,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



기간 | 2014년 2월 ~

연락처 | 063-320-3215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5

홈페이지 | www.mujuanseongcc.co.kr

무주안성 컨트리클럽은 전략적인 코스로 구성된 18홀 골프장입니다. 퍼팅그린에는 양잔디를 식재로 세계 정상급 그린을 조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코스 및 전략적이며 도전적인 코스, 지형을 최적화한 코스 등 다양한 코스설계로 플레이어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청정지대인 무주의 맑은 공기와 함께 매혹 덕유산의 수려한 경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기시기 바랍니다.



골든베이(한화 골프장)

혜택 | 1) 골든베이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 할인(팀당 36만 원 / 4인 1팀 기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기간 | 2014년 11월 ~ 연락처 | 041-671-8000, 8100

홈페이지 | www.goldenbay.kr

2) 플라자CC 설악/제주 : 그린피 면제

기간 | 2016년 1월 7일 ~ 3월 18일 연락처 | (설악)033-630-5511~4, (제주)064-727-9000

골프사랑

기간 | 2012년 4월 1일 ~

혜택 | 골프사랑 전 여행상품(홈페이지 참조) 직원이 적용, 국내전세버스 정상요금의 10~15% 할인

담당자 | 김종석 과장

연락처 | 031-284-7777 국내 전세버스는 가족회사 (주)삼일관광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골프존아카데미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정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삼성 / 목동지점 제외) 이용가능 지점

서울 :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경기 :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점, 용인보정점, 김포사우점,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조건 | 1일 1회(60분) 이용 / 등록 지점에 한함 담당자 | 임동환 대리 연락처 | 070-8640-6431

대영힐스 CC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 69,000원(단, 주말/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담당자 | 서병일 대리 연락처 | 043-860-8601~3

기타 | 그린피 할인을 위한 '대영힐스 CC 프로등록 신청서'를 제출

레이크힐스 용인 CC

기간 | 2012년 7월 15일 ~

혜택 | 정회원 내장 시 1인 정회원 대우, 그린피 : 정회원 23,000원 / 주중회원 100,000원

연습장 이용 시 KLPGA 정회원, 준회원 50%

담당자 | 영업운영팀 최남미 연락처 | 1588-8186

롯데스카이힐

기간 | 2015년 5월 ~

혜택 |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 내장 시 주중 50% 할인, 주말 30% 할인

(김해CC 이용 시 개별소비세 별도)

연락처 | 제주(064-731-2020~24), 김해(055-340-9001~4),

성주(054-930-9001~3), 부여(041-939-1701~4)

리앤리 CC

기간 | 2013년 5월 20일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1부 4인 1팀 기준 그린피 50% 할인,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담당자 | 김만기 대리 (영업담당) 연락처 | 031-580-9021

무주안성 CC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 / 정회원 간 2인 플레이 가능,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

연락처 | 063-320-3215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5

〈member's service〉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매달 분야별로 세 개 업체의 회원혜택을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성 CC

기간 | 2015년 4월 ~ 2018년 3월
혜택 | 그린피 회원 2명까지 면제, 호텔다향 50% 할인, 레스토랑 20% 할인, 미술관 무료 관람
연락처 | 061-804-1000 (대표전화)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기간 | 2016년 7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인 동반자 3인 내장,
내장고객 호텔 1박 이상 이용 시 정회원 1인 그린피 무료
연락처 | 1644-0280 홈페이지 | www.southcape.co.kr

서원힐스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주중 : 3만 원 / 주말 : 2만 원 할인)
골프연습장 입점 골프아카데미 혜택
: 국가대표, 상비군선수 연습 라운드, 쇼트게임, 타석 무료 제공
우수선수 연습비용(라운드, 타석) 할인 혜택 제공
연락처 | 031-941-0025 (예약실) 홈페이지 | www.seowongolf.co.kr

세라지오 CC

기간 | 2013년 8월 12일 ~
혜택 | 1)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25,000원 / 주말 : 105,000원
2)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 105,000원 / 주말 : 150,000원
주말 예약은 2주에 한 번, 주말 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연락처 | 031-887-8700 (예약실)

스카이72 GC

기간 | 2005년 ~
혜택 | 1) 그린피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및 티칭회원 중
스카이72 GC 인터넷 회원일 경우 예약/ 내장 시 10% 할인, 주중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2) 드림골프 레인지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자동타석 30%(주중), 20%(주말) 할인
담당자 | 스카이72 GC 김형준 매니저 연락처 | 1644-7222

스프링베일 GC

기간 | 2012년 ~
혜택 | 1) 주중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일 경우 50% 할인)
2) 주말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50% 할인(동반자 2명일 경우 혜택 없음)
1팀 내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혜택
연락처 | 033-254-7900

신안골프레이닝센터

기간 | 2014년 7월 ~
혜택 | 타석, 파3, 벙커 / 쇼트게임, 사우나 이용료 할인
연락처 | 031-673-8853 홈페이지 | www.shinancc.co.kr

써닝포인트 CC

기간 | 2016년 3월 ~
혜택 | 1) 그린피 할인: KLPGA 정회원 주중 50%, 주말 30% / 준회원 주중 30%, 주말 15%
2) 숙박할인: 1박 기준 2인 1실 6만 원(정회원, 준회원 동일)
연락처 | 031-329-0800(예약실)

오너스골프클럽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적용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33-260-1918, 1919

옥스필드 CC

기간 | 2012년 4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연락처 | 033-340-7700

우리들리조트 제주

기간 | 2012년 10월 ~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준회원 : 주중 그린피 50%,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인터불고경산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해당일 5일 전부터 잔여 타임에 한해 시행, 해당일 5일 이전 예약 요청 시 팀 당 50% 1명 할인
연락처 | 1544-4222 (예약실) 홈페이지 | www.interburgoccc.com

중원골프클럽

기간 | 2015년 9월 ~
혜택 | 지방 행정 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 그린피 30%할인 적용
연락처 | 042-849-8000 홈페이지 | www.joongwongolf.co.kr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동로 392

캐슬렉스 제주 CC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그린피, 객실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 회원, 동반자 그린피 할인
2) 골프장 객실 할인, 제주도 대회 참가 프로 예약시 객실료 별도 협의 가능
3) 골프장 및 객실 이용 시 연습장 할인(바구니 5천 원)
담당자 | 주흥성 영업총괄팀장 연락처 | 064-793-6600 / 010-2697-0001

타니 CC

기간 | 2012년 ~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 주중 6만 원 (할인 혜택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55-831-7010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1) 프로 1명 + 비회원 3명 : 프로는 주중 3만 원 / 주말 5만 원
2) 동반자는 당일팀 : 정상가 / 1박 2일 팀 : 패키지가 적용 프로 4명 : 주중 50% 할인
3)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 원 할인(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박정연 주임 연락처 | 061-530-7722, 7723

포천힐스 CC

기간 | 2015년 3월 1일 ~
혜택 | 주중 1부(08:30 이전) : 6만 원, 일요일 2부(12:30~01:00) : 8만 원
연락처 | 031-538-7000(예약실)

한성 CC

기간 | 2015년 3월 ~
혜택 | 주중 1부(07:30 이전)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면제 (4인 1팀 기준)

해비치 CC 제주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golf.haevichi.com (사전예약제로 운영)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기간 | 2015년 6월 12일 ~

혜택 | 주중 1부 아마추어 3인 동반 시 프로 1인 그린피 50,000원
아마추어 2인 동반 시 프로 2인 그린피 65,000원

연락처 | 051-726-0752

힐드로사이 CC

기간 | 2014년 8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만 원(4인 1팀 기준)

연락처 | 예약실 033-439-3333(유선 예약만 가능)

360도 CC

기간 | 2014년 1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며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강남 베스트성모안과

기간 | 2016년 1월 ~

- 혜택 | 1) 안 검진 : 50여 가지 정밀 라식검사 무료 검진
2) 시력교정수술비 혜택 : 라식, 라섹, 안내렌즈 삽입술 ICL, 노안수술
3) 동반수술 시 추가할인, PRP자가혈청치원
4) OCT검사장비 대학병원급장비 보유
5) 백내장검사&수술, 황반변성&녹내장 조기검진(30~50%)

연락처 | 윤형준 실장 (010-9771-8690)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4-9 송촌빌딩 14층(역삼역 6번 출구)

서울메디케어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의료혜택항목 :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연락처 | 1644-0336 홈페이지 | www.seoulmedicare.com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비보험 진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홍주 부장 연락처 | 010-7795-0515 (사전예약제로 운영)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9, 4층(서현동, 센트로빌딩)

세브란스체크업

기간 | 2014년 9월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혜택 | 1)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패키지검진
2) 지방 고객에 한하여 KTX 편도 금액 상당의 할인 혜택 제공(영수증 지참必)
3)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
4)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5)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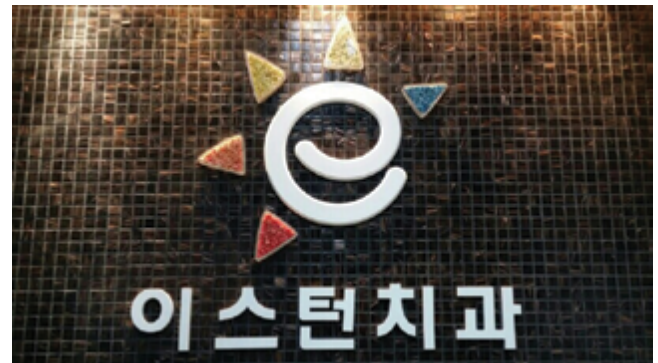
연락처 | 1588-7757 (사전예약제로 예약 필수)

위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이스턴 치과의원

혜택

KLPGA 회원 및 임직원(가족 포함)을 위한 구강검진, 상담,
진료 및 치료에 관련된 사항과 사후관리, 수술비용 할인
(사전 예약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2012년 11월 ~

대표문의 | 02-553-2804

담당자 | 김미경 진료실장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광진빌딩

* 구체적인 할인율에 대한 공지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공지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전화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스턴치과는 1993년 이래 24년째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예방과 진료에 힘써왔으며, 최소한의 무통치료로 환자분께 한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스턴치과에서는 본인 치아를 최우선으로 하는 충치치료 및 신경치료, 레이저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최상급레이저를 이용한 잇몸성형 및 치주치료, 교합조정 및 치료, 악(턱)관절장애 상담 및 치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미백술, 심미보철치료, 오랜 기간 숙련된 스태프의 스케일링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LPGA 회원 및 임직원(가족 포함)을 위한 구강검진, 상담, 진료 및 치료에 관련된 사항과 사후관리, 수술비용 할인 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사전 예약 시 원하는 시간에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미경 진료실장 연락처 | 02-553-2804

하늘안과의원

기간 | 2012년 7월 1일 ~

혜택 | 안구 종합검진(50여 가지 정밀검사) 무료,

시력교정술비 혜택(라식, 라섹, 안내 렌즈삽입술, 노안수술),

ONE-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 수술회망 시 제휴 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사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생 활 문 화

군산 세빌스 호텔

기간 | 2015년 5월 20일 ~

혜택 | 슈퍼리얼 트윈룸, 더블룸 198,000원 → 주중 66,000원 / 주말 88,000원 / 조식 별도(15,000원)

담당자 | 김윤환 지배인 연락처 | 063-790-8082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4년 6월 11일 ~

혜택 | 디럭스더블 / 110,000원 → 60,000원(할인가)

디럭스 트윈 / 121,000원 → 50,000원(할인가)

스위트 더블 / 143,000원 → 88,000원(할인가)

스위트 트윈 / 154,000원 → 105,000원(할인가)

스위트 트리플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로얄테라스 스위트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당 객실요금 10,000원 /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505~6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고회연, 돌잔치 할인(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76

금호리조트

기간 | 2015년 4월 ~ 연락처 | 02-737-5400(예약실)

혜택 |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객실 할인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이용방법 | 1) KLPGA 회원혜택 해당관을 통해 예약페이지 접속 후 예약 진행

2) 예약실 유선예약도 가능

까라디

기간 | 2012년 9월 ~ 연락처 | 02-545-4000

혜택 |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장가의 50% 할인

까스텔바작

기간 | 2016년 10월 ~ 2016년 12월

혜택 | KLPGA 회원 대상, 30% 할인

대표문의 | 02-3498-0358 담당자 | 오현선

홈페이지 | www.castelbajackorea.com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하니문 최대 10% 할인, 작가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자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기타 |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보[Revo]선글라스

기간 | 2016년 7월 ~ 담당자 | 노연서 대리 연락처 | 070-4291-8383

혜택 | KLPGA 회원, 전제품 30% 할인 홈페이지 | www.revokorea.com

메디 필라테스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및 가족 30% 할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SK허브 C동 105호

담당자 | 박혜지 프로 연락처 | 031-602-7840 홈페이지 | blog.naver.com/medipilal

(주)모리앤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모리앤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50% 할인(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한혜주 과장 연락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가입

범양글러브

기간 | 2016년 7월 ~

혜택 | 스카치글러브 45% 할인, 할인행사기간 중 전제품 최대 80%

담당자 | 윤정안 실장 연락처 | 070-7117-2117 홈페이지 | www.kglove9.com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월~토 : 10시 30분~19시)

담당자 | 이동은 학예사 연락처 | 02-2192-3005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퍼리타타워 지하2층

기타 | KLPGA 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와룡산업 와플케어 개인용 온열기

기간 | 2014년 12월 ~

혜택 | 개인용 온열기 전품목 30% 할인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의료용(2인용) / 소비자가 700,000원 → 할인가 490,000원

의료용(1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2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1인용) / 소비자가 450,000원 → 할인가 315,000원

실속2인용 / 소비자가 500,000원 → 할인가 350,000원

투어용 / 소비자가 350,000원 → 할인가 245,000원

쇼파용 / 소비자가 250,000원 → 할인가 175,000원

방석 / 소비자가 120,000원 → 할인가 84,000원

배달개 / 소비자가 150,000원 → 할인가 105,000원

담당자 | 김선옥 실장 연락처 | 031-977-8774 홈페이지 | www.waplecare.com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7117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턴인내셔널호텔

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연락처 | 032-747-3301

혜택 |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연간 동일한 가격 혜택

담당자 | 임현빈 마케팅 부장 (070-4510-6241)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번길 47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까스텔바작

혜택

KLPGA 회원 대상, 30% 할인

* 까스텔바작 전국 매장에서 회원증 제시 (매장은 홈페이지 참조)



기간 | 2016년 10월 ~ 2016년 12월

대표문의 | 02-3498-0358

담당자 | 오현선

홈페이지 | www.castelbajackorea.com

2015년 3월 국내 론칭된 프랑스 명품 골프웨어 '까스텔바작(Castelbajac)'은 1968년 프랑스에서 출발해 48년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젊은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아트 골프 웨어'를 표방하고 있으며,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골프웨어의 기능성을 살렸습니다. 가격은 경쟁사 대비 약 70% 수준으로 거품을 없앴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되 노세일 정책으로 브랜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겨울 시즌에는 '과거와 미래 여행'을 콘셉트로 가을은 과거에 뛰어 놀던 정원, 주사위 등의 아트워크를, 겨울은 비행기, 우주선, 미래 상상 속의 동물 등의 아트워크를 사용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KLPGA 회원분들에게는 올해 (~ 2016.12.31. 까지) 30% 제품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세일 브랜드인 만큼 특별한 혜택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

혜택 | 객실이용 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www.wellhillipark.com/partnership 객실정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빌라드 애월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객실료 50% 할인(풀빌라 제외)

연락처 | 064-720-9013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516-7(신엄리 2768-7)

제주센트럴시티호텔

기간 | 2016년 7월 ~ 2018년 6월

혜택 | 1) 객실할인 : 주중 100,000원 / 주말·연휴 110,000원

2) 조식할인 : 회원 본인 10,000원 / 동반 고객 15,000원

3) 렌터카 업체 연계 차량 렌탈 할인 서비스 제공

담당자 | 김창근 부장 연락처 | 064-800-2603 / 010-6690-0796

주소 | 제주 제주시 노연로 66

제주 항공우주호텔

기간 | 2014년 5월 ~

혜택 | 슈퍼리어(9평) : 주중 70,000원 / 주말 90,000원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기타 | 성수기(7/25 ~ 8/20) 별도 요금 적용

청풍리조트

기간 | 2015년 12월 ~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 133,000원

할인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60,000원, 주말(금, 토) : 75,000원

담당자 | 박종미 연락처 | 02-422-8100

캘러웨이 골프 어퍼럴 할인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캘러웨이 어퍼럴 30% 할인(정상가 대비) / 전국매장(정상매장, 아울렛)

담당자 | 최은영 과장 연락처 | 02-2211-1343

헤지스골프, 닥스골프 할인

기간 | 2016년 2월 1일 ~ 12월 31일

혜택 | 소비자 정상가 40% 할인(1인 200만 원 한도)

1) 온라인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LF몰(www.lfmall.co.kr) 헤지스골프, 닥스골프

2) 오프라인 : 전국 주요 가두매장(백화점 제외)

연락처 | 1544-5114(고객센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eMA

기간 | 2014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18일(2년간)

혜택 | 학비감면, 입학 지원

1) 학비 감면 혜택 : 등록금의 20% 감면

한학기 등록금 : 3,442,000원(20% 감면 시 : 2,753,600원)

* 입학금(입학 시 1회만 납부) : 467,000원

2) 모집정원 : 모집인원 증원 시 상호협의 하에 진행

3) 강사임용 : 협회회원 지원 시 특전 부여(가산점 부여 할 수 있음)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정경일 교수 (3408-3817, 010-9357-0680)

연락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3408-3740, 3703, 3704)

홈페이지 | www.emba.ac.kr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1) 모집학과 : 골프·리조트경영학과

2) 모집인원 : 총 00명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미 실시) - 평가기준 : 적성, 경력, 성적, 연구계획서 등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6년 4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70% 할인,
N파고다(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파고다 스타(온라인) 50% 할인
(오프라인 강좌 70% 할인)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별 등록 시 직접 방문 신청(KLPGA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온라인 강좌 N파고다 2강좌 무료 수강〉

- KLPGT 홈페이지 → 멤버존 → 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온라인 강좌 파고다 스타 50% 할인〉

웹주소 : www.pagodastar.com 가입 후 수강 등록

신청기간 | 매월 15일 ~ 30일

담당자 | 파고다 고영순 대리 연락처 | 02-6907-2867

기타 |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를 70% 미달일 경우 : 1년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 모집인원 : 70명 (영어 : 50명, 일본어 : 10명, 중국어 : 1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 2)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 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 교육, 매월 교육비 100% 협회 지원(1인당 약 60,000원)
- 사이버강의 무료 지원 : 파고다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무료 수강
- 4) 지원기간 : KLPGA에서 개인별 최대 4개월(총 48회) 지원
-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주연수 사원 jys821@klpga.com

연락처 | 02-560-4427, FAX) 02-539-6003

홈페이지 | klpga.npogoda.com/user/main

기타 |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출석률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중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한국능률협회(회원인문소양교육)

기간 | 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7월

혜택 | KLPGA 회원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할인(기타혜택)

- 1) 교육대상자 : KLPGA 회원(정/준/퇴직)
- 2) 교육형태 : 매월 1회
- 3) 교육프로그램
가. 리더스모닝포럼(서울)
4) 모집인원(선착순모집)
가. 리더스모닝포럼 : 선착순 20명 예정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 5) 교육기관 : 한국능률협회
- 6) 교육지원
매월 1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되는 포럼 참가 및 참가비 100% 협회 지원(1인당 약 200,000원)

7) 신청방법

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신청

나.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다. E-MAIL : jys821@klpga.com / FAX : 02-539-6003

■ 기타혜택

가. KLPGA 회원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최대 20% 할인

- 공개교육(계층, 리더십, 공통, HRD, 직무, 글로벌 과정, KMAC 직무과정)
- 사이버교육(계층, 리더십, 조직, 경영, 영업, 금융, 유통, 제조, 건설, 의료 과정)
- 컨퍼런스(트렌드 세미나)

※ 홈페이지 참조 www.kma.or.kr

나. 기타 세미나 초청(영문지식 콘서트, HRD 특별 컨퍼런스, KMA 프로포즈 데이)

다. B2B 서비스(할인)

- 경비 절감(5~60%) : DHL 코리아, 한국렌탈, KT글로벌센터, 한수지 플라워
- 직원 복지(15~50%) : 슈페리아, 그랜드힐튼호텔, 전담관광, 드림성모안과

담당자 | KLPGA 업무지원팀 주연수 사원(02-560-4427)

기타 | 1) 매월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 KLPGA뉴스 기사판에 공지

2) 사전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차후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3) 교육 전 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대체



하나카드

기간 | 2008년 ~

혜택 | KLPGA 플레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 1) 연회비 :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 원, 이후 2년 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 2) 3개월 무이자 할부 : 할부 가능한 전기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레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 플레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지정 예약처 :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 7%, 국내선 5%, 해외패키지 7% 할인
- 6) 발레파킹 :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 7) 특급호텔 :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 8) S-OIL 리타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5천 원)
-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틀이랜드 등
- 11) 보험 :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5백만 원

담당자 | 하나카드 플레티늄 고객센터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부터는

캐슈백 적립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부터는 면제됩니다.

※ 하나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레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기성 세무사

기간 | 2013년 5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지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장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중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연락처 | 02-516-7745

투어, 꿈을 향한 도전

◆미래에셋대우 CLASSIC 2016 종료시점

대상포인트

KLPGA TOUR Ballantine's 발렌타인 대상포인트 KLPGA POINT

순위	이름	포인트
1	박성현	480
2	이승현	442
3	고진영	423
4	배선우	407
5	이민영2	353

상금순위



순위	이름	상금
1	박성현	1,219,476,667
2	고진영	811,865,999
3	장수연	599,331,943
4	배선우	596,311,351
5	이승현	534,273,713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름	포인트
1	이소영	1724
2	이정은6	1604
3	김지영2	1209
4	박지연	1131
5	김아림	1121

03 March

10 ~13

World Ladies Championship 2016
일정: 3월 10일 ~ 13일
장소: 중국 미션힐스 동관
총상금: 70만불
우승자: 이정민(BC카드)

25 ~27

The Dalat at 1200 Ladies Championship
일정: 3월 25일 ~ 27일
장소: Dalat at 1200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조정민(문영그룹)



04 April

7 ~10

제9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일정: 4월 7일 ~ 10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장수연(롯데)

15 ~17

삼천리 Together Open 2016
일정: 4월 15일 ~ 17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박성현(뱅크)

22 ~24

백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6
일정: 4월 22일 ~ 24일
장소: 가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박성현(뱅크)

29 ~5/1

제6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일정: 4월 29일 ~ 5월 1일
장소: 새남포인트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뱅크)

05 May

6 ~8

제3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
일정: 5월 6일 ~ 8일
장소: 군산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김해림(롯데)

13 ~15

2016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5월 13일 ~ 15일
장소: 수원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장수연(롯데)

19 ~22

2016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일정: 5월 19일 ~ 22일
장소: 라데나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현(뱅크)

27 ~29

E1 채리티 오픈
일정: 5월 27일 ~ 29일
장소: 휘닉스프링스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배선우(삼천리)

06 June

3 ~5

제6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일정: 6월 3일 ~ 5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현(금성침대)

10 ~12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일정: 6월 10일 ~ 12일
장소: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박지영(CJ 오쇼핑)

16 ~19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일정: 6월 16일 ~ 19일
장소: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안시현(골든블루)

23 ~26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6
일정: 6월 23일 ~ 26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오지현(KB금융그룹)

평균타수

순위	이름	평균타수
1	박성현	69.71
2	고진영	70.55
3	장수연	71.07
4	배선우	71.10
5	이승현	71.11

평균퍼팅

순위	이름	평균퍼팅수
1	김혜윤	29.44
2	조정민	29.49
3	이승현	29.73
4	김소이	29.75
5	고진영	29.80

톱텐 피니쉬율

순위	이름	톱텐 피니쉬율
1	박성현	64.71
2	고진영	59.09
3	이승현	56.52
4	배선우	54.17
5	이민영2	45.45

2016 TOUR SCHEDULE

07
July

1 ~3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일정: 7월 1일 ~ 3일
장소: 웨이하이 포인트 중국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민영(한화)

8 ~10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일정: 7월 8일 ~ 10일
장소: 버지힐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소영(롯데)

14 ~17

BMW Ladies Championship 2016
일정: 7월 14일 ~ 17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고진영(벡스)

22 ~24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6
일정: 7월 22일 ~ 24일
장소: 서원밸리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승현(NH투자증권)

29 ~31

카이도 MBC PLUS 여자오픈 Presented By LIS
일정: 7월 29일 ~ 31일
장소: 인터불고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조정민(문영그룹)

08
August

5 ~7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일정: 8월 5일 ~ 8월 7일
장소: 오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박성현(벡스)

19 ~21

BOGNER MBN 여자오픈
일정: 8월 19일 ~ 21일
장소: 더스타휴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박성현(벡스)

25 ~28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일정: 8월 25일 ~ 28일
장소: 하이원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김예진(요진건설산업)

09
September

1 ~4

한화금융 클래식 2016
일정: 9월 1일 ~ 4일
장소: 골든베이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박성현(벡스)

8 ~11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9월 8일 ~ 11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배선우(삼천리)

23 ~25

미래에셋대우 CLASSIC 2016
일정: 9월 23일 ~ 25일
장소: 엘리시안 강촌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양채린(교촌 F&B)

30 ~10/2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일정: 9월 30일 ~ 10월 2일
장소: 솔모로
총상금: 6억 원



6 ~9

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10월 6일 ~ 9일
장소: 블루해런
총상금: 8억 원

13 ~16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일정: 10월 13일 ~ 16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200만 불

20 ~23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일정: 10월 20일 ~ 23일
장소:레이크우드
총상금: 8억 원

28 ~30

혼마골프·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일정: 10월 28일 ~ 30일
장소: 드림파크
총상금: 5억 원

11
November

4 ~6

팬텀 클래식 With YTN
일정: 11월 4일 ~ 6일
장소: 88
총상금: 6억 원

11 ~13

ADT캡스 챔피언십 2016
일정: 11월 11일 ~ 13일
장소: 사우스스프링스
총상금: 5억 원

18 ~20

조선일보 챔피언십 2016
일정: 11월 18일 ~ 20일
장소: 미정
총상금: 7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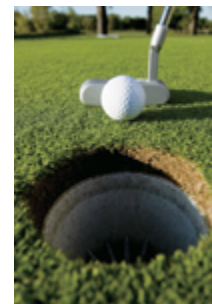
12
December

2 ~4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일정: 12월 2일 ~ 4일
장소: 미요시컨트리클럽
총상금: 1억 엔

16 ~18

2016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일정: 12월 16일 ~ 18일
장소: 사자호 GC
총상금: 56만 불



종료대회

2016

드림투어·점프투어·챔피언스투어

04
April05
May06
June07
July

1				
2		KLPGA 2016 영광CC배 점프투어 3차전 일정 : 5월 2일 ~ 3일 장소 : 영광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이수연		
3				
4			KLPGA 2016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8차전 일정 : 7월 4일 ~ 5일 장소 : 그랜드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장은수B	KLPGA 2016 노블레스-모리턴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3차전 일정 : 7월 4일 ~ 5일 장소 : 선히 총상금 : 4천만 원 우승자 : 정일미
5				
6			KLPGA 2016 비바하트배 드림투어 9차전 With LEXUS 일정 : 7월 6일 ~ 7일 장소 : 휘닉스파크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안소현	
7			KLPGA 2016 비바하트배 드림투어 5차전 With LEXUS 일정 : 6월 7일 ~ 8일 장소 : 휘닉스파크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김지은	KLPGA 2016 노블레스-모리턴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1차전 일정 : 6월 7일 ~ 8일 장소 : 선히 총상금 : 4천만 원 우승자 : 김선미
8				
9				
10				
11	KLPGA 2016 군산CC컵 드림투어 1차전 With LEXUS 일정 : 4월 11일 ~ 12일 장소 : 군산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한정은	KLPGA 2016 영광CC배 점프투어 4차전 일정 : 5월 11일 ~ 12일 장소 : 영광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이수빈		
12				
13			KLPGA 2016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5차전 일정 : 6월 13일 ~ 14일 장소 : 그랜드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장인영	
14				
15			KLPGA 2016 비바하트배 드림투어 6차전 With LEXUS 일정 : 6월 15일 ~ 16일 장소 : 휘닉스파크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정혜원	
16				
17				
18		KLPGA 2016 군산CC컵 드림투어 4차전 With LEXUS 일정 : 5월 18일 ~ 19일 장소 : 군산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김혜진2		KLPGA 2016 노블레스-모리턴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4차전 일정 : 7월 18일 ~ 19일 장소 : 선히 총상금 : 4천만 원 우승자 : 서예선
19				
20	KLPGA 2016 군산CC컵 드림투어 2차전 With LEXUS 일정 : 4월 20일 ~ 21일 장소 : 군산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최은송		KLPGA 2016 비바하트배 드림투어 7차전 With LEXUS 일정 : 6월 20일 ~ 21일 장소 : 휘닉스파크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정솔아	KLPGA 2016 노블레스-모리턴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2차전 일정 : 6월 20일 ~ 21일 장소 : 선히 총상금 : 4천만 원 우승자 : 이영미
21				
22			KLPGA 2016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6차전 일정 : 6월 22일 ~ 23일 장소 : 그랜드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정선아	
23				
24				
25	KLPGA 2016 영광CC배 점프투어 1차전 일정 : 4월 25일 ~ 26일 장소 : 영광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조은혜	KLPGA 2016 군산CC컵 드림투어 3차전 With LEXUS 일정 : 4월 25일 ~ 26일 장소 : 군산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김도연3		KLPGA 2016 신한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일정 : 7월 25일 ~ 26일 장소 : 신한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손성화
26				
27	KLPGA 2016 영광CC배 점프투어 2차전 일정 : 4월 27일 ~ 28일 장소 : 영광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한진선		KLPGA 2016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7차전 일정 : 6월 27일 ~ 28일 장소 : 그랜드 총상금 : 3천만 원 우승자 : 한진선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0차전 일정 : 7월 27일 ~ 28일 장소 : 백제 컨트리클럽 총상금 : 6천만 원 우승자 : 안근영
28				
29			KLPGA 2016 비바하트배 드림투어 8차전 With LEXUS 일정 : 6월 29일 ~ 30일 장소 : 휘닉스파크 총상금 : 7천만 원 우승자 : 노연우	
30				
31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	KLPGA 2016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일정: 8월 1일 ~ 2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김유빈			
2				
3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1차전 일정: 8월 3일 ~ 4일 장소: 백제 컨트리클럽 총상금: 6천만 원 우승자: 지주현			
4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6차전 With LEXUS 일정: 10월 4일 ~ 5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5			KLPGA 2016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7차전 일정: 9월 5일 ~ 6일 장소: 영광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정일미	
6			KLPGA 2016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5차전 일정: 10월 6일 ~ 7일 장소: 그랜드 총상금: 3천만 원	
7				
8	KLPGA 2016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일정: 8월 8일 ~ 9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이승연	KLPGA 2016 노블레스- 모리터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5차전 일정: 8월 8일 ~ 9일 장소: 백화 총상금: 4천만 원 우승자: 정일미		
9				KLPGA 2016 동야회원권 챔피언스 오픈 10차전 일정: 11월 9일 ~ 11일 장소: 블루원 상주 총상금: 1억 원
10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2차전 일정: 8월 10일 ~ 11일 장소: 백제 컨트리클럽 총상금: 6천만 원 우승자: 김아현			
11				
12			KLPGA 2016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3차전 일정: 9월 12일 ~ 13일 장소: 그랜드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임진희	
13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7차전 With LEXUS 일정: 10월 12일 ~ 13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14				
15				
16	KLPGA 2016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일정: 8월 16일 ~ 17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이유민			
17			KLPGA 2016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 일정: 10월 17일 ~ 18일 장소: 그랜드 총상금: 3천만 원	
18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3차전 일정: 8월 18일 ~ 19일 장소: 백제 컨트리클럽 총상금: 6천만 원 우승자: 지주현			
19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 With LEXUS 일정: 10월 19일 ~ 20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20				
21				
22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4차전 일정: 8월 22일 ~ 23일 장소: 백제 컨트리클럽 총상금: 6천만 원 우승자: 황지애			
23				
24	KLPGA 2016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6차전 일정: 8월 24일 ~ 25일 장소: 영광 총상금: 6천만 원 우승자: 원재숙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9차전 With LEXUS 일정: 10월 24일 ~ 25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25				KLPGA 2016 동야회원권 챔피언스 오픈 9차전 일정: 10월 25일 ~ 27일 장소: 블루원 상주 총상금: 1억 원
26				
27	KLPGA 2016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4차전 일정: 9월 27일 ~ 28일 장소: 영광 총상금: 8천만 원			
28				드림투어
29	KLPGA 2016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5차전 With LEXUS 일정: 9월 29일 ~ 30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점프투어
30				챔피언스투어
31				종료대회

10 OCTOBER KLPGA TOUR

미리 둘러보는 10월 KLPGA투어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막판 순위경쟁이 기대되는 10월. 찬바람이 부는 어느 멋진 날에 선수들이 화려하게 펼칠 궁극의 플레이가 벌써 기다려진다. 어떤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 10월 대회 현장으로 미리 가보자.

글 _ 김정미

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0월의 첫 번째 대회인 '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여주에 있는 블루헤런 컨트리클럽(파72/6,680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KLPGA투어 중 최장기 단일 스폰서 대회로 초대 챔피언인 강수연부터 신지애, 서희경, 김효주 등의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해왔던 대회다.

KLPGA 정통 메이저 대회로 매년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를 연출하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같이 총상금 8억 원의 규모로 열리며, KLPGA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선수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메이저 퀸이라 불리는 전인지가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며, 하이트진로의 새로운 가족이 된 KLPGA의 루키 김아림이 스폰서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쟁한 선수들이 거쳐 간 꿈의 무대에서 이번 대회에서 그 명맥을 이어갈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 귀추가 주목된다. 대회는 블루헤런 컨트리클럽의 동(OUT), 서(IN) 코스에서 72홀 스토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스 소개

블루헤런 컨트리클럽은 단 한 명의 선수에게도 타이틀 방어를 허락하지 않는 코스로 악명 높은 곳이다. 한국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전원적인 서코스과 웅장하고 공격적인 동코스로 조화되어 있다. 특히 서코스 9홀은 전체가 트인 하나의 페어웨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뛰어난 레이아웃을 자랑한다.

올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양주에 있는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6,800야드)의 산길(OUT)과 숲길(IN) 코스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대회는 매 대회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연출하며 전통과 권위의 메이저 대회로 자리매김했고, 명성에 걸맞게 출전 선수 또한 화려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116년 만에 다시 열린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골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가 참가해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박인비는 이번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국내 대회 첫 우승의 숙원을 이루게 된다. 또한 올시즌 다승을 거두고 있는 박성현, 고진영, 조정민, 장수연, 배선우 등이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의 우승을 맞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 지난 6월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6'에서 우승한 오지현이 스폰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만큼 참여하는 선수들의 불꽃 튀는 순위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 소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코스는 레이크 코스와 우드 코스로 나뉜다. 레이크 코스는 페어웨이가 넓고 벙커도 많지 않아, 드라이브하기에 최적인 코스다. 우드 코스는 전장 6,470m의 현대식 코스로서 천보산 자락의 계곡과 계류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라운드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코스다.

'혼마골프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이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흘간 드림파크(파72/6,716야드)에서 열린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은 지난 2007년 창설돼 골프 한류의 산실 역할을 해온 중견 대회다. 올해 대회 스폰서인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8월, 혼마골프와 손잡고 '혼마골프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을 공동개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회는 초대 우승자인 신지애를 비롯해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하늘과 지난해 3년 만에 정상에 복귀한 김혜윤까지 수많은 스타 챔피언들을 배출하며 권위와 품격을 쌓아왔다. 서울경제가 혼마골프와 처음으로 손을 잡고 개최하는 대회라 올해는 더욱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2016시즌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각종 순위결정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9회째를 맞은 '혼마골프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은 인천 드림파크 컨트리클럽 파크(OUT/IN) 코스에서 총상금 5억 원으로 열린다.



코스 소개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의 파크 코스는 18홀로 조성되어있다. 인위적인 조경 보다는 매립이 완료된 지형을 토대로 친환경 생태공원의 자연미를 살려 넓고 안정된 페어웨이와 홀 간격 조성으로 다양한 수준의 골퍼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정통 토너먼트 코스다.

10월 온라인 참가신청 안내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6	27	28	29	30	1	2
KLPGA 2016 정회원선발전						
챔피언스투어 3차 디비전(9~10차전)						
3	4	5	6	7	8	9
KLPGA 2016 정규투어(11월대회신청)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KLPGA 2016 정회원선발전 - 신입 준회원						
24 / 30	25	26	27	28	29	30

2016 KLPGA 정규투어 대회별 참가인원 및 프로암, 공식연습일 일정 공지(9월 07일 기준)

No.	월	대회명	장소	프로암	공식연습일	본대회	라운드	참가인원
27	10월	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블루헤런(*)	없음	10.05(수)	10.06(목) ~ 10.09(일)	4R	108명
-		LPGA KEB·HANA BANK CHAMPIONSHIP	스카이72 바다	10.12(수)	10.10(월) 10.11(화)	10.13(목) ~ 10.16(일)	4R	78명
28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레이크우드	10.18(화)	10.19(수)	10.20(목) ~ 10.23(일)	4R	120명
29		혼마골프·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드림파크	10.26(수)	10.27(목)	10.28(금) ~ 10.30(일)	3R	108명
30	11월	팬텀클래식 With YTN	88	11.02(수)	11.03(목)	11.04(금) ~ 11.06(일)	3R	108명
31		ADT 캡스 챔피언십 2016	사우스스프링스	11.08(화) 11.09(수)	11.10(목)	11.11(금) ~ 11.13(일)	3R	전년과 동일
32		조선일보 챔피언십 2016	미정	11.16(수)	11.17(목)	11.18(금) ~ 11.20(일)	3R	전년과 동일
-	12월	더커크 presented by 코와	미요시 일본	-	-	12.02(금) ~ 12.04(일)	3R	36명
33		2016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샤자호 중국	12.14(수)	12.12(월) 12.13(화) 12.15(목)	12.16(금) ~ 12.18(일)	3R	108명

* 위 내용은 9월 07일(수) 기준의 확정일이며, 스폰서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나 선수분들께서는 이점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LPGA 2016 챔피언스 투어 3차 디비전(9차전 ~ 10차전) 개최 안내

대회명	일정	상금	장소
KLPGA 2016 동아회원권 챔피언스 오픈 9차전	2016년 10월 25일(화) ~ 27일(목)	1억 원	블루원 상주CC
KLPGA 2016 동아회원권 챔피언스 오픈 10차전	2016년 11월 09일(수) ~ 11일(금)	1억 원	블루원 상주CC

*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생일 맞은 김예진, 생애 첫 우승 기쁨



KLPGA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에서 김예진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예진은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1개, 보기 3개로 2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기운이 뚝 떨어진 날씨 속에 다른 선수들도 타수를 줄이지 못해 김예진은 합계 5언더파 283타로 자신의 21번째 생일에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김해림이 추격했지만 2타 뒤진 3언더파 285타로 2위에 올랐습니다. 2011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낸 김예진은 지난해 정규투어에 데뷔, 신인왕 포인트 2위에 올랐지만 준우승 한 차례만 차지했을 뿐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규투어 51번째 대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진영과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예진은 전반 한때 5타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다 7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내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예진이 이 홀에서 퍼트를 할 때 캐디를 맡은 김예진의 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주는 바람에 2벌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이 김해림이 추격전을 벌여 10번홀까지 1타 차로 쫓아왔습니다. 김예진은 1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만회했고, 김해림이 14번홀(파3)에서 1타를 잃은 바람에 다시 3타차 단독 선두로 달아났습니다. 김예진은 15번홀(파5)과 17번홀(파4)에서 1타씩을 잃었지만, 추격하던 김해림도 4개 홀을 남기고 보기 3개와 버디 1개로 2타를 잃었습니다. 김예진은 18번홀(파4)에서 그린을 놓쳐 다소 불안했지만 5m 거리의 파 퍼트를 깨끗하게 성공, 우승을 만끽했습니다. 마지막 날 3타를 줄인 김보경은 3위(2언더파 286타)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공동 선두였던 고진영은 4라운드에서 무려 10타를 잃는 난조를 보여 16위(3오버파 291타)로 떨어졌습니다.

(기사제공 - SBS 정희돈 기자)

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 금융 클래식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더블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6언더파를 기록해 고진영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선두에 4타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박성현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 우승했습니다. 시즌 7승, 통산 10승째를 올린 박성현은 국내 최고 우승 상금인 3억 원을 받아 올 시즌 상금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4년 김효주가 세운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에 불과 300만 원 차로 다가서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습니다.

박성현에 이어 시즌 상금과 대상 포인트 등에서 2위를 달리는 고진영이 합계 5언더파 단독 2위로 마쳤고, 조윤지와 이민영, 김지현이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초청 선수로 출전한 세계랭킹 4위 렉시 톰슨(미국)은 마지막 날 1타를 줄여 합계 2언더파, 6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서대원 기자)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연장전 아픔 씻은 배선우, 시즌 2승



K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이수그룹 KLPGA 챔피언십에서 배선우가 정상에 오르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배선우는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에서 열린 대

회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16언더파로 김지영과 공동 선두로 이룬 뒤 연장전에서 이겨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배선우는 파5, 18번홀에서 치른 첫 번째 연장전에서 패배 위기에 몰렸지만 김지영의 1.5m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 나온 덕에 기사화생한 뒤 연장 세 번째 홀에서 4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피 말리는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5월 더 챔피언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린 배선우는 넉 달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려 최정상급 선수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

[한화금융 클래식 2016] 박성현 시즌 7승, 상금 12억 원 돌파

국내여자골프 최고 스타 박성현 선수가 올시즌 7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상금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성현은 충남 태안 골든베이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

니다. 배선우는 박성현, 고진영, 장수연, 조정민에 이어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다승자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폭발력보다는 안정적인 샷으로 꾸준한 성적을 내온 배선우는 우승 상금 1억 6천만 원을 보태 상금랭킹 4위(5억 8천431만 원)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배선우는 지난해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최종라운드 선두를 달리다 연장전에 끌려 들어가 생애 첫 우승 기회를 날린 아픈 기억도 씻어냈습니다. 새내기 김지영은 지난 4월 삼천리 투게더오픈에 이어 올해 두 번이나 연장 승부에서 무릎을 꿇는 연장전 악연에 올랐습니다. 4타를 줄인 김지영은 3언더파 68타를 친 배선우를 따라 잡는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지영은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꺼져가던 신인왕 레이스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언더파 69타를 적어낸 김지현은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나가지 못하고 3위(15언더파 273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시즌 8승에 도전한 박성현은 1오버파 73타로 부진했습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18위에 그친 박성현은 단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사제공 - SBS 정희돈 기자)

[KLPGA 2016 제2차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13차전] 임진희, 생애 첫 우승 달성!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랜드 컨트리클럽(파 72/6, 2240야드) 서코스(OUT, 동코스(IN))에서 열린 'KLPGA 2016 제2차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13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임진희(18)가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8-67)로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4언더파 68타 단독 3위로 1라운드를 마친 임진희는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6언더파 138타로 마친 2위 그룹의 김은유(20), 강윤경(19)을 3타차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손에 쥐었다.

임진희는 "오늘 우승해서 정말 기쁘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코치님께도 감사드립니다"고 웃으며 소감을 밝힌 뒤, "아마추어 때도 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프로가 되고 나서 우승하게 돼서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전반에는 살짝 긴장해서 기회를 많이 놓쳤다. 후반에 긴장이 풀리면서 초반부터 버디 3개를 잡으면서 그 후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진희는 "사실 첫날에 샷이 정말 잘 났다. 전반에 경기가 잘 풀려서 느낌이 좋았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샷이 흔들려 위기 상황이 많았지만 다행히 파로 잘 막아냈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첫날의 플레이를 회상했다.

임진희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방과 후 교실'을 통해 골프를 시작했다. 임진희는 "처음에 아버지께서 '방과 후 교실'로 골프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셨고, 6학년 때 부모님께 골프선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다. 골프를 시작한 이래로 여태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며 부모님께 감사함을 다시 한 번 표시했다.

퍼트와 60m 정도의 거리에서의 웨지 컨트롤 샷이 가장 자신 있다고 밝힌 임진희는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즐거움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골프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임진희는 "앞으로 남은 점프 투어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1차 목표이고, 그 후 하루빨리 정규투어에 데뷔하는 것이 2차 목표다. 일본에서 꾸준한 활약을 하시는 전미정 프로님처럼 일본 투어에 진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당차게 목표를 밝혔다.

한편,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를 친 이민지(18)가 단독 4위에 자리했고, 아마추어 박진선(18)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를 기록해 공동 5위 그룹에 속하며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KLPGA 2016 영광CC-Volvik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6차전] 원재숙, 시즌 1승 달성!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영광 컨트리클럽(파 72/5,792야드)에서 열린 'KLPGA 2016 영광CC-Volvik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6차전(총상금 6천만 원, 우승상금 1천8십 만 원)'에서 원재숙(47)

이 2016 시즌 챔피언스 투어 여섯 번째 우승컵을 거머쥐며 생애 첫 번째 챔피언스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 'KLPGA 2016 노블레스-모리턴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5차전'에서 2위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원재숙은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70-70)로 경기를 마쳐 공동 2위 박성자(51), 홍희선(45)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1992년에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원재숙은 동시에 JLPGA투어에도 진출하여 2000년까지 6승을 기록했지만, KLPGA투어에서는 아쉽게 우승은 기록하지 못했다. 2008년까지 정규투어 무대에 간간히 출전하며 우승을 노렸던 원재숙은 2009년과 2010년에는 드림투어에서 활약하다가 2011시즌부터는 챔피언스 투어로 무대로 옮겨 활약하고 있다.

원재숙은 "챔피언스투어 5년 차만에 거둔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운을 떼며, "우승을 못한다는 것에 사실 어깨가 많이 무거웠다. 이번 우승으로 짐을 내려놓은 것 같고, 함께 걱정해주신 주변 분들에게 보답한 것 같아서

더 기쁘다"라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원재숙은 "마지막 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17번홀까지 5언더파여서 '마지막 홀만 잘하면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티박스에 올랐는데, 긴장하고 우승을 의식해서 그런지 티샷이 OB가 났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OB가 난 후 정신이 번쩍 들더라. 그 후 '오늘도 우승은 어렵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더니 좋은 샷이 나와서 우승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챔피언스투어가 골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원재숙은 "챔피언스투어를 통해 우승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느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챔피언스투어를 열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이제 우승에 대한 짐과 부담을 내려놔오니, 남은 대회에서는 편안하게 내 골프를 하는 것이 목표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박한 목표를 밝혔다.

한편, 한소영(43)은 최종합계 2언더파 142타를 기록해 단독 4위에 올랐고, 1차전 우승자인 김선미(43)를 비롯해 연용남(45), 임정희(50), 박양희(43)가 이를 함께 1언더파 143타를 쳐 공동 5위에 자리했다.

[KLPGA 2016 영광CC · 볼빅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7차전] 정일미, 시즌 3승 달성!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영광 컨트리클럽(파72/5,792야드)에서 열린 'KLPGA 2016 영광CC · 볼빅 챔피언스 오픈 With SBS 7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2백6십만 원)에서 정일미

(44, 호서대학교)가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선두와 4타 차 공동 4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정일미는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데일리리스트 스코어인 66타를 기록하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9-66)로 한 타 차 우승을 일궈냈다. 챔피언스 오픈 3차전과 5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정일미는 3차전부터 7차전까지 5개 대회 연속 톱텐(우승 3회 포함)에 들어 꾸준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일미는 "퍼트는 원래 좋아하는 편이고, 올해 클럽을 바꾸면서 드라이브 비거리가 10m 정도 늘어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일미는 2015년 챔피언스투어 평균퍼트수 부문 1위였으며, 이번 시즌에도 1위를 달리고 있다. 2013년부터 호서대학교 골프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정일미는 "매년 1승씩을 거두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목표는 이뤘다. 남은 시즌에는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나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한편,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던 이윤희(43)가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5-71)로 단독 2위를 기록했고, 최세영(49)과 이광순(47), 홍희선(45)이 5언더파 139타 공동 3위로 경기를 마쳤다.

[KLPGA 2016 회장배 여자아마골프 선수권 대회] 국가 상비군 이가영, 6언더파 210타로 통합 우승!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 컨트리클럽(부안/남원코스)에서 열린 'KLPGA 2016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본선 마지막 날, 중·고·대학부에 출전한 국가 상비군 이가영

(17, 창원사파고2)이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75-70-65)를 기록하며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신설한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는 미래의 한국여자프로골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 탄생의 등용문이자 기회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첫 회 우승자인 배희경(24)을 비롯해 현재 KLPGA투어 'NH투자증권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소영(19, 롯데) 등 실력파 선수들이 본 대회에서 우승하며 스타플레이어로 성장했다.

예선 2일, 본선 3일의 일정으로 치러진 이번 'KLPGA 2016 회장배 여자아마골프 선수권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대학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초등부 1위를 차지한 하윤서(13, 대전신계초6)와 중·고·대학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가영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메달, 상장, 그리고 장학금 1백만 원이 수여됐다. 중·고·대학부 통합 1위를 차지한 이가영은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KLPGA 강춘자 수석부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챙겨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국가 상비군인 이가영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상반기까지 국가 상비군을, 2015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가대표를 지냈다. 이가영은 2015년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와 올해 2월, 호주에서 열린 '2016골프 NSW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고, 8월에는 '스포츠조선배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이보미(28, 노부타그룹)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가영은 "항상 꾸준한 성적을 내고 미소를 잃지 않는 이보미 선수를 닮고 싶다. KLPGA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뒤에는 이보미 선수처럼 일본 투어에서도 활동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고·대학부 통합 5위 이내에 든 선수에게는 KLPGA 준회원 실기테스트 면제 특전이 주어진다. 우승자 이가영을 포함해 최예림(17, 동광고2), 박고린(17, 현일고2), 조하나(16, 학산여고), 이소미(17, 광주금호중양여고2) 등 5명의 선수가 혜택을 받았다. 한편, KLPGA는 우수 아마추어 육성 및 골프 대중화를 위해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뿐만 아니라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를 개최하여 가능성 있는 선수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즈 골프 캠프, 유소년 골프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KLPGA, '팬텀클래식 with YTN' 조인식 가져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8월 24일(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YTN 본사에서 '팬텀클래식 with YTN' 개최협약에 관한 조인식을 가졌다. 팬텀C&F(대표이

사 우진석)와 보도전문채널 YTN(대표이사 조준희)이 공동 주최하고, KLPGA(수석 부회장 강춘자)가 주관하는 '팬텀클래식 with YTN'은 오는 11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KLPGA 대회를 처음으로 주최하게 된 팬텀C&F 우진석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골프산업과 고락을 함께 해오며 많은 사랑을 받아 성장해 온 팬텀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KLPGA의 대회를 주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새롭고 참신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YTN 조준희 대표이사는 조인식에 참석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KLPGA가 지속적으로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YTN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YTN이 단순히 언론사의 역할이 아닌 골프산업 자체를 한걸음 발전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 대회 개최를 결정해주신 팬텀C&F 우진석 대표이사님, YTN 조준희 대표이사님께 감사 드린다"며, "이 대회가 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을 탄생시키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KLPGA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질 11월에 첫 대회로 열릴 '팬텀클래식 with YTN'은 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 2천만 원 규모로 치러지며, 국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해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팬텀C&F는 1993년 런칭하여 현재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국내의 대표적인 골프웨어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YTN은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1995년 한국 최초의 뉴스전문 TV채널로 개국한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채널이다.

KLPGA,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정규투어 선수 대상으로 '부정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 시행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이 열리는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대회 참가하는 KLPGA투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부정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KLPGA 클린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경기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KLPGA는 최근 불

거진 스포츠 부정행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부정방지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의 최영진 강사가 진행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현황, 승부조작 관련 사례 및 대처법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교육을 시행했다. 앞자리에서 강연을 경청한 김해림(27, 롯데)은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언행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전 관리 교육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인 이재정 강사가 말아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강연은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시와 자료를 통해 진행되었고, 선수들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부정방지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은 정규투어뿐만 아니라 하부투어 및 입문교육 등에서도 시행된다. 점프투어 12차전 종료 후 점프투어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티칭회원 입문교육에서도 교육이 시행됐으며, 9월부터 11월에 걸쳐 드림투어 및 챔피언스투어, 정회원 입문교육 등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국 출신 파린다 포칸, KLPGA 2016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 수석 통과



태국 출신의 파린다 포칸(20)이 8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 72/6,478야드) 레이크(OUT), 파인(IN) 코스에서 개최된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68-71-75-68)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파린다 포칸은 최종 성적 상위 30%까지 주어지는 2017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및 드림, 점프투어 시드순위전 예선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파린다 포칸은 "어제 실수가 많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다. 3라운드 직후

연습을 많이 했고 자신감을 얻어 오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1등으로 통과해서 정말 기쁘고 지금은 마음이 조금 편안하다”고 말했다. 파린다 포칸은 3개월 전 프로로 전향한 태국 LPGA의 신인 선수로, 지난 해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한 '제5회 SINGHA-SAT 태국 LPGA 챔피언십 2015'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태국의 유망주이다. 골프를 치는 아버지를 따라 나간 코스에서 흥미를 느껴 골프를 시작하게 된 파린다 포칸은 LPGA투어의 선수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파린다 포칸은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본선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 정규투어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출전하는 모든 대회에서 컷 탈락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 파린다 포칸은 “USLPGA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배출해내는 KLPGA 무대에 반드시 올라 그들과 함께 경쟁하며 세계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KLPGA는 세계 넘버원 투어로 도약하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실시했고, 2016 시즌에는 아라타케 루이(23,일본)와 나츠키 하타노(19,일본)가 I-투어 멤버로서 점프투어와 드림투어에서 활동했다. 글로벌 투어를 향한 첫걸음인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는 만 18세 이상의 해외 국적을 소지한 프로 또는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8명이 참가했던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올해는 일본, 태국, 미국, 중국, 우간다 국적을 지닌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 20명이 문을 두드려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최종 순위 상위 30%는 일본과 태국 출신의 선수들이 자리했다. 레누카 석수컨트(21, 태국), 고시쿠모 미나미(20, 일본), 야스후쿠 센노(25, 일본), 니시무라 미키(20, 일본), 나타게이 니미풍쿨(20, 태국)은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을 비롯해 드림, 점프투어 시드순위전 예선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었다. 지난 7월에 열린 'KLPGA 2016 제2차 준회원 선발전'을 통해 외국인에게 준회원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는 D-투어 멤버로 입회한 다케우치 아유미(24, 일본)는 이번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출전해 최종합계 7오버파 299타를 치며 7위에 자리했고, 9위 아라타케 루이와 12위 장 지에날린(20, 중국)도 상위 60%에 속하며 드림, 점프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본 자격은 차기연도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가 실시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편, 다케우치 아유미와 함께 준회원 선발전을 통과했던 고가 에이미(21, 일본)는 13위에 자리해 아쉬움을 삼켜야 했고, KLPGA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우간다 출신의 '플라비아 나미쿨라(31)'도 최종합계 24오버파 312타를 쳐 15위에 자리하며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KLPGA 2017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은 오는 11월 15일(화)부터 나흘간, 본선은 22일(화)부터 나흘간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치러지며, 이번 'KLPGA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통과한 상위 30% 외국인 선수 6명이 참가할 수 있다.

2016 KLPGA 키즈 골프 캠프 진행!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9월 3일(토)과 4일(일) 이틀간 '제1차 KLPGA 키즈 골프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KLPGA 키즈 골프 캠프'는 9월에서 10월까지 각 차전별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남녀 50여 명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캠프 장소를 전국 각지(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등)로 확대해 기획의 폭을 넓혔다.

골프 캠프에 참여하는 유소년은 KLPGA투어 참관과 골프 교실 체험, 프로 선수와의 만남 등 골프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된다. '제1차 KLPGA 키즈 골프 캠프' 첫날에는 한양여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입소식을 가진 뒤, 공동체 놀이와 챔피언스 투어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하는 골프 교실을 체험했다.

둘째 날은 KLPGA투어 최대 상금규모와 메이저 급의 코스 세팅을 자랑하는 '한화금융 클래식 2016'의 대회장을 참관했다. 중계차 견학과 함께 직접 만든 에티켓 보드를 들고 선수를 응원하며 생생한 대회 현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2차 KLPGA 키즈 골프 캠프는 9월 10일(토)과 11일(일) 양일간 진행되며 KLPGA투어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인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을 참관하게 된다. KLPGA강춘자 수석부회장은 “유소년들이 골프에 친숙함을 느끼고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키즈 골프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 행사에 참여한 유소년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골프를 이끌어 나갈 기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LPGA는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등 대회 개최는 물론 유소년 골퍼 멘토링,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선정한 2016 KLPGA투어 베스트 포토입니다.

사진 _ 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BOGNER MBN 여자오픈 ·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KLPGA투어 최다출전기록
(237회 출전)을 세운 김보경이
출발 전 아버지와 함께 포즈 취하고 있다
BOGNER MBN 여자오픈
김보경



신다빈, 11번홀 워터해저드에 발을
담근채 아이언샷을 날리고 있다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신다빈!



10번홀 출발 전 강한 바람에
우산이 뒤집혀 당황하고 있는 박성현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박성현



정경정경 좌우로 정경, 하민송
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하민송

한화금융 클래식 2016 ·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렉시 톰슨, 18번홀 티샷 날리고 있다
한화금융 클래식 2016
렉시 톰슨



안신애가 3번홀 버디 성공 후
캐디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한화금융 클래식 2016
안신애



우승 축하 꽃잎 세례받는 박성현
한화금융 클래식 2016
박성현



허윤경이 10번홀 송발 전
동효선수와 당소를 나누고 있다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허윤경



연장 세번째 홀 우승 확정 후
기뻐하는 배선우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배선우



BAE SEON WOO

새로운 메이저 퀸의 탄생,
배선우를 만나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열린
올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생애 두 번째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린 배선우.
그의 꾸준함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의 골프 이야기를 엿들어본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고광훈

첫 우승,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

지난 시즌,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상금순위 6위로 마무리한 배선우. 여러 차례 준우승을 거두며 우승의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실망하지 않았다. 자신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과정일 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그 문이 열리리라는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5월, '더 채리티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덩달아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이수그룹 제38회 KPGA 챔피언십'에서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KPGA투어 메이저 쿼터의 계보를 이었다. "뜻깊고 의미 있는 두 대회에서 우승해서 뿌듯해요."

새로운 기록들도 세웠다. 처음 우승한 '더 채리티 오픈'에서 배선우는 최종합계 20언더파 196타를 기록하며 54홀 최소타를 달성했다. 또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더불어 KPGA투어에서 8년 만에 일궈낸 노보기 우승이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수그룹 제38회 KPGA 챔피언십'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최종라운드 첫 홀에서 핀을 맞췄어요. 샷 감이 좋아서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플레이를 했는데 실수를 했죠. 이후 만회하려고 더 몰입하다 보니 떨림이 덜하면서 좋은 흐름이 온 것 같아요."

시련과 고민이 만들어준 단단한 밑거름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한다는 배선우는 흔들림 없는 강한 마음가짐을 위해 필드 위에서 주문을 걸곤 한다. '즐겁게, 재미있게 플레이하자'라고, 특히 경기 중에는 잘할 때마다 '잘했다'며 자신에게 칭찬하곤 한다. 남에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시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힘, 이것이 그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단다. "작년에 아쉬웠던 순간들은 오늘날의 제가 단단하게끔 하여준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동안의 시련과 고민이 없었더라면 우승의 욕심이 앞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더불어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올시즌을 앞두고 떠난 전지훈련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며 시야도 넓혔다. "KPGA 상위권 프로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스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공략하는 방법 등 여러 부분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며, 때론 동료선수로, 때론 친구로서 그의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인생 베스트스코어를 기록할 정도로 자신감도 회복했다. 그렇게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2016시즌을 맞이했다.

항상 저는 남들보다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조금씩 앞서가는 것만 같았죠.
그러나 조금 늦을 뿐,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니까요.





배선우가 추천하는 인생노래

정인의 '오르막길'.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와 함께 가사를 곱씹으며 듣는 편이에요.
윤종신이 작사한 이 곡의 가사는 마치 저에게 하는
위로 같아서 가장 좋아합니다.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이 부분이에요.
꼭 한 번 들어보세요~

to. KLPGA 독자 여러분

KLPGA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 배선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배선우



작년에 아쉬웠던 순간들은
오늘날의 제가 단단하게끔
하여준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동안의 시련과
고민이 없었더라면
우승의 욕심이 앞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에너지가 돼주는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운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수영, 태권도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선수의 길을 추천받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조부모님의 반대로 운동 선수는 제 길이 아닌 듯했다. 그러다 우연히 할아버지를 따라 골프장에 가면서 취미로 시작했던 골프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하며 골프대비를 자처한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옆을 지켰다. 긴 시간 동안 딸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눴다. 딸이 기쁠 때는 배로 기뻐했고 힘들 때는 격려와 위로로 절감시켜줬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딸이었기에 배선우는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문득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무엇보다도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든든한 보양식 먹으러 가려고요. 하하.” 가족뿐 아니라 그의 투어생활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바로 캠퍼스 생활을 같이하는 친구들. 2012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세계의 친구들을 만났다. 골프가 아닌 다른 스포츠,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교감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학교생활에 치중할 수 있었던 1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주 못 만나서 아쉽지만, 동문이자 친한 친구인 (장)수연이와 많은 애길 나누며 서로 힘이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차근차근 오름길을 오르고 있는 그의 행보

롤모델인 줄리 잉스터처럼 오랫동안 필드 위에서 투어생활을 하고 싶다는 배선우. 늘 겸손하고 꾸준한 선수가 되기 위해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을 더했다. “항상 저는 남들보다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조금씩 앞서가는 것만 같았죠. 그러나 조금 늦을 뿐,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니까요.” 국가상비군, 국가대표, 프로가 되기까지 토레보다 일 년씩 늦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더 탄탄한 기둥을 쌓았다고 생각했다. 지름길보다는 평탄한 길을 선택한 그였다. 언젠가는 같은 목적지, 정상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남은 시즌에도 우승에 대한 큰 욕심이 없었다. “올시즌 목표가 첫 우승이었어요. 이를 이룬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기뻐요. 다만 톱텐에는 꾸준히 들고 싶어요. 앞으로 제 골프 인생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함으로 회자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씩, 차근차근 오름길을 오르고 있는 배선우. 가끔은 먼 풍경을 뒤돌아보며 웃음 지을 수 있는 멋진 투어 생활을 즐기길 응원한다.

배선우 (Bae Seon Woo) / 裴善雨

생년월일 1994년 03월 01일

입회연도 2012년 11월

소속 삼천리

정규투어 통산우승 2승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우승

티 채널티 오픈 우승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6 2위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3위

2016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4위

천천히,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다

드림투어 11차전, 13차전 우승자 지주현

KLPGA 드림투어에서 두 번의 우승을 거머쥐며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주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시간이 연상되지 않을 만큼 해맑은 미소를 가진 그를 만나보자.

글 _ 김청미 사진 _ 강권신

“저의 능력은 특별한 장기도 아닌 끝없는 인내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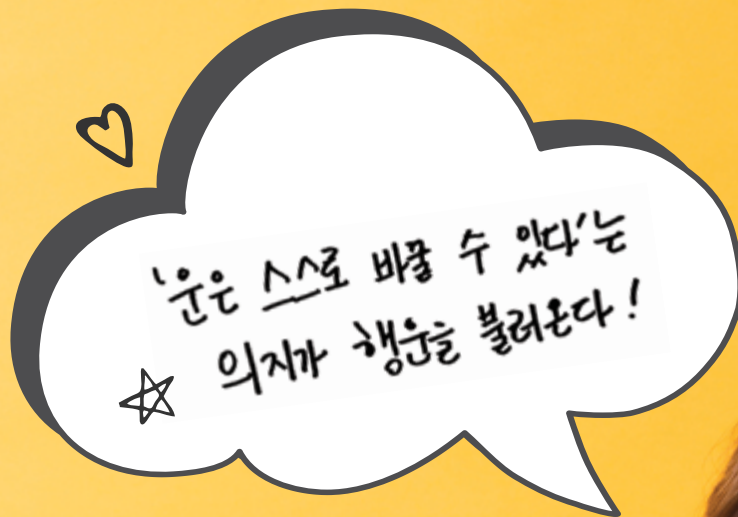
끝없는 인내와 긍정적인 생각이 가져온 첫 우승

지주현은 지난 8월 4일,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1차전'에서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며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내어 자신감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획득했다. KLPGA 입회 후 7년 만에 찾아온 우승이라 울고 불며 환호할 만도 한데 지주현은 달랐다.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결국, 기다리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진부한 말이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 닿았어요.”

오랫동안 꿈꿔온 우승의 순간을 자신의 차분한 성격답게 침착하게 받아들인 그는 11차전 우승에 이어 13차전에서도 우승하며 단숨에 상금순위 8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상금순위 1위에게 부여되는 USLPGA투어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출전권도 획득했다. “모두가 꿈꾸는 에비앙 챔피언십 출전의 기회를 얻어서 정말 기뻐요. 무엇보다도 주어진 기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큰 무대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할 거예요.” 체격도, 실력도 항상 남들보다 조금씩 부족해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에 매진해온 그는 “저의 능력은 특별한 장기도 아닌 끝없는 인내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며 겸손하게 우승 소감을 덧붙였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선수

선수 대부분이 그렇듯 그도 초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평소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골프를 즐겨하시는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했고, 재미로 들어본 골프채를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골프는 다른 운동과 달리 혼자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은 운동이더라고요. 그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등산을 즐겨하던 지주현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한 곳의 목표를 두고 끈기있게 올라가는 등산과 골프는 많이 닮아있었다. 그는 요즘도 드림투어를 함께 뛰는 동료이자 친구인 정슬아, 유수연과 자주 산을 오른다고 한다. “저와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등산하면서 고민을 툭툭 털어버리고 내려오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엔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는 스물넷 답지 않은 깊은 숙내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의 목표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목표부터 하나하나씩 이루고 싶다는 지주현은 조금씩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놓쳤던 부분을 찾고 싶어 한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드라이버 샷을 집중해 보강하니 결과는 항상 ‘조금씩 전진’이었다. 그때부터 주어진 훈련을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 단점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기록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낫다.



제2의 슈퍼땅콩이라는 단단한 꿈을 꾸다

157cm의 작은 키로 인해 '슈퍼땅콩'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김미현 프로. 지주현은 자신과 비슷한 체격을 가진 김미현 프로를 본보기로 삼고 제2의 슈퍼땅콩을 꿈꾸고 있다. "운동선수는 체격 요건이 무척 중요한데 저는 체격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미현 프로님처럼 체력을 키워서 강력한 드라이버 샷을 치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은 지주현. 지금처럼 밝은 미소로 변치 않고 걸어간다면 김미현 프로만큼이나 훌륭한 선수가 될 거란 것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빨리 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진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다소 진부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진실에 가까운 말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지주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구처럼 삶은 어찌면 고통, 혼란의 연속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통의 순간을 이겨 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힘든 오늘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지주현은 느리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진화 중이다.

지주현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주현 (Ji Joo hyun) / 池州賢

생년월일 1992년 04월 30일

입회연도 2010년 10월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1차전 1위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3차전 1위

KLPGA 2016 군산CC컵 드림투어 2차전 With LEXUS 5위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 하는

'메이저 대회'의 모든 것

10월, 서늘한 가을바람도 잊게 하는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두 개의 메이저 대회가 펼쳐진다.
어떤 대회보다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메이저 대회의 우승.
그렇기에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승하고 싶어 하는 대회다.
메이저 대회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한다.

글 _ 김소현



메이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꿈꾸는 이유

투어 활동을 하는 선수라면 꼭 한 번의 우승을 바라는 대회, 바로 메이저 대회다. 수많은 대회 중에서도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메이저 대회에서의 우승은 선수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 대회와 달리 메이저 대회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보통 메이저 대회는 대회의 역사와 상금 규모에 따라 크게 결정된다. 더불어 대회에 따라 난이도를 결정하는 코스 상태와 대중 인지도, 스폰서, 이벤트 사전 참가 조건 등이 메이저 대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KLPGA투어의 4대 메이저 대회는 KLPGA 챔피언십,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KB금융스타챔피언십이 있다. 이 대회들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 대회임은 물론, 역대 챔피언들이 쌓아온 권위와 위상을 내세울 수 있는 KLPGA투어의 대표 대회들이다. 더불어 역대 우승자들이 대부분 해외무대에서도 활약한 것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 발굴의 산실인 셈이다. 대회의 권위가 갖는 무게감과 이를 이겨내는 담력을 가진 선수에게만 우승의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렵기로 소문난 메이저 대회의 코스 세팅은 선수의 실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

그만큼 메이저 대회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상당하다. 일반 대회 우승자에게는 2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KLPGA투어 시드권과 대상포인트 40포인트가 주어진다. 반면, 메이저 대회 우승자에게는 약 2배의 혜택이 주어진다. KLPGA투어 시드권은 4년간 보장받으며, 대상포인트는 70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신인상 포인트도 일반 대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190포인트보다 훨씬 많은 310포인트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는 메이저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Major Game Big 4 with KLPGA



+ Tip

그랜드 슬램이란?

투어에서 모든 메이저 대회의 우승을 거뒀을 때 '그랜드 슬램'이라 일컫는다. 한 시즌에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면 '캘린더 그랜드 슬램(Calendar Grand Slam)'이라고 하며, 이와 달리 선수 생활 중에 모든 메이저 대회를 한 번 씩 우승하는 것을 별도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Career Grand Slam)'이라고 한다. KLPGA투어에서는 신지애가 유일하게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거두며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후 서희경과 전인지가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다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된다. USLPGA투어는 루이스 석스, 미키 라이트, 팻 브래들리, 줄리 잉스터, 캐리 웹, 아나카 소렌스탐이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고, 한국 선수로 유일하게 박인비가 지난 시즌 이를 달성해 총 7명이 커리어 그랜드 슬램으로 기록되어 있다.



—
우승트로피에
입 맞추는 2013시즌
KLPGA 챔피언십 우승자
김세영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KLPGA투어 4대 메이저 대회

KLPGA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KLPGA 챔피언십'은 1978년에 출범해 지금까지 38년간 메이저 대회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자랑해왔다. KLPGA의 역사를 함께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대 챔피언인 한명현을 비롯해 강춘자, 구옥희, 고우순, 김미현, 김영, 최나연, 신지애, 김세영, 백규정, 안신애 등 KLPGA를 대표하는 쟁쟁한 선수들이 우승을 거두며 명맥을 이어나갔다. 올해는 배선우가 세 번의 연장 끝에 우승컵을 거머쥐며 새로운 메이저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1987년에 창설해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도 오랜 전통이 있는 메이저 대회다. 특히 한국여자골프를 대표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만큼 챔피언 라인도 화려하다. 초대 챔피언 강춘자를 시작으로 고우순, 정일미, 김미현, 김영, 강수연, 송보배, 신지애, 서희경, 전인지, 김효주 등이 이 대회의 우승을 디딤돌 삼아 해외 무대로 뻗어 나갔다. 지난 시즌에는 현재 개인통산 10승을 달성하며 국내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성현이 생애 첫 우승을 거뒀고, 올시즌은 엄마골퍼 안시현이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가 됐다.

대회 스폰서와의 오랜 인연으로 그 전통과 역사를 인정받아 메이저 대회로 자리 잡은 대회도 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가장 대표적이다. 2000년에 이 대회를 창설한 대회 스폰서 하이트진로는 지금까지도 KLPGA와 함께하며 명문대회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대회 역시 매년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다. 초대 챔피언인 강수연이 3연패를 기록하고 뒤이어 최혜정, 신지애, 서희경, 김하늘, 김효주, 전인지 등이 우승을 거두며 입지를 다졌다. 또 다른 대회로 매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를 장식하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이 대회는 매 대회마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연출하며 전통과 권위가 높은 대회로 자리 잡았다. 대회 스폰서인 KB금융의 스포츠 마케팅 일환으로 2006년, 'KB국민은행 스타투어' 출범한 이 대회는 시즌 네 번의 대회를 개최하다가 2010시즌부터 메이저 대회로 개최됐다. 신지애, 서희경, 이보미, 양희영, 장하나, 김효주, 전인지까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스타플레이어들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다.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해 주목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만큼, 올시즌 역시 화려한 출전 선수들의 라인업이 기대된다.



—
우승 축하 물세례를 받은 후 기뻐하는
2016시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우승자 안시현

2015시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효주

2015시즌 KLPGA 챔피언십에서
네 번의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한
안신애

Major Game Big 4 with KLPGA



—
2012시즌 US 여자오픈의
우승을 차지한
최나연



—
2008시즌,
2015시즌 두 차례나
US 여자오픈의
정상을 지킨 박인비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은 USLPGA 메이저 대회

최초의 메이저 대회는 1930년에 시작한 USLPGA의 우먼스 웨스턴 오픈이다. 현재 이 대회는 사라졌지만, USLPGA투어의 5대 메이저 대회로 US 여자오픈,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ANA 인스피레이션, RICOH 브리티시 여자오픈, 에비앙 챔피언십이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1946년에 창설돼 메이저 대회로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US 여자오픈'은 1998시즌 박세리가 20홀 연장이라는 기록적인 승부를 통해 우승하면서 유명해진 대회다. 이후 박인비, 지은희, 유소연, 최나연, 전인지의 우승으로 한국과 인연이 깊은 대회기도 하다. 1955년부터 열린 'LPGA 챔피언십'은 박세리와 박인비가 3연패를 기록해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대회로 지난 시즌부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으로 대회명을 변경했다. 1983년 메이저 대회로 격상된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는 박지은, 유선영, 박인비가 우승했었고, 지난 시즌부터 스폰서 변경으로 인해 ANA 인스피레이션으로 대회명을 바꿨다. 1976년에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로 처음 시작한 '브리티시 여자오픈'은 1994년부터 미국 USLPGA와 공동 개최 대회로 성장한 뒤 2001년부터 메이저 대회로 승격됐다. 2007년부터 일본의 리코(Ricoh)사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RICOH 브리티시 여자오픈으로 변경했으며, 장정, 신지애, 박세리, 박인비가 우승을 거둔 대회기도 하다. 최근 2013시즌에 메이저 대회로 격상된 '에비앙 챔피언십'은 다른 대회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신지애, 박인비, 김효주가 우승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긴 대회다. 특히 지난 9월, 메이저 쿼터 전인지가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USLPGA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
USLPGA투어
2014시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둔 김효주

—
2015시즌 US 여자오픈에
서 우승을 거두며
한·미·일 메이저를
제패한 전인지



〈사진출처 _ LPGA 공식홈페이지〉



대회에서의 우승은 모두 값지지만
오랜 역사, 상금 규모, 높은 난이도 등을 갖추고 있는
메이저 대회의 우승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많은 선수들이 꿈꾸는 메이저 대회의 우승.
이번 10월, 올시즌 마지막 두 개의 메이저 대회가
화려하게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Lee
Mee
Na



이미나



〈별들의 그날〉은 2000년대
국내투어를 빛낸 우승자를 만나고 있다.
이번호에는 2002시즌 대상, 상금왕, 신인왕을
모두 휩쓸었던 이미나 프로다.

아마추어 때 정규투어 대회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미나 프로.
프로 데뷔 후에도 개인통산 4승을 달성하며 국내 무대에서 활약했다.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고서도 우승을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의 오랜 투어생활을 공개한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Q 이미나 프로가 기억하는 최고의 순간은?

아마추어 때, 영광스런 생애 첫 우승컵을 차지했던 그 날

2002년, 프로에 입문하자마자 시즌 3승을 달성한 무서운 슈퍼 루키가 등장했다. 이전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정규투어 대회인 '2001 스포츠서울투어 스포츠평토토 여자오픈'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주목받았던 이미나 프로. 베테랑 프로들 사이에서도 주목이 들지 않고 흔들림 없는 경기력에 사람들의 기대가 쏠렸다.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프로 데뷔 시즌 세 번의 우승과 더불어 5개의 대회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톱텐에 들었다. 그리고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상금왕, 신인왕, 선수공로상, 미디어상을 휩쓸었다. 자신감이 넘쳤을 법도 하지만 그는 그때의 투어생활을 영광이라 말한다. "유명한 프로님들과 함께 경기하고 투어생활을 하는 게 마냥 신기했어요. 그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성적도 덩달아 좋았던 것 같아요."

생애 첫 우승을 거뒀던 '2001 스포츠서울투어 스포츠평토토 여자오픈'은 이미나 프로에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대회다. 공동 20위로 1라운드를 끝낸 그는 2라운드 때 버디를 몰아치며 단독 1위로 올라섰고 최종라운드에서 정일미 프로와 연장에 돌입하게 됐다. 그리고 차분히 파 퍼트에 성공시키며 잊지 못할 우승을 맞았다. "실감 나지 않고 어리벙벙했어요. 프로님들과 겨뤄 좋은 성적을 낸 거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죠." 데뷔 후 첫 우승이었던 2002시즌 '아워스몰 인비테이셔널'도 잊지 못할 대회다. "아마추어 때 우승과 달리 프로 세계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많은 관심을 주시는 만큼 더 잘하고 싶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같은 해 '제3회 우리증권 클래식 골프대회'에서의 우승은 그가 미국 무대를 꿈꾸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 우승자에게는 'LPGA 삼성 월드챔피언십'의 출전권이 주어졌기에 우승 욕심이 났다. 다섯 번의 연장이 이어질 정도로 어려웠던 승부였지만 그에게는 꿈에 다가설 수 있었던 뜻깊은 우승이었다.



Q 꿈에 그리던
해외 투어생활은
어땠나?

한 층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잘 적응할 것만 같았다. 특히 너무나 꿈꾸던 미국 무대였고 자신감도 넘쳤다. 그리고 2년, 2005시즌 USLPGA투어 'BMO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대역전승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미나 프로는 울음을 터트렸다. 씩씩함으로 가려졌던 힘들었던 일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 "그렇게 꿈꾸던 미국 무대였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투어생활로 그동안 많이 속상했었나 봐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도 했던 찰나의 우승이라 기억에 남아요." 많이 기대했던 만큼 조금함도 컸을 것이다. "우승은 하고 싶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도, 동료들과 어울림도 편안해졌죠. 성적도 꼴찌에서 예선통과, 40위, 30위, 상위권.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어요. 뒤늦게 깨달은 셈이죠." 이미나 프로는 자연스럽게 미국 환경에 녹아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해 'LPGA 필즈오픈'에서 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여러 번 준우승을 거두며 활발한 미국 투어생활을 한지도 벌써 13년, 베테랑이 됐다.

Q 투어생활 15년,
앞으로의
계획은?

새로운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다

이미나 프로에게도 수많은 후배가 생겼다. 후배들과 함께 투어생활을 하다 보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에 눈이 간단다. "(박)인비는 초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멋진 모습을 지켜보니 대견스러웠어요.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제 일처럼 정말 기뻐요. 후배지만 같은 선수로서 여러 면을 배우고 싶은 훌륭한 선수예요." 프로 15년 차, 필드 위에는 후배들이 더 많아졌고 어느새 선배가 되어 있었다.

긴 투어생활을 뒤로한 채, 이미나 프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단지 피아노가 치기 싫어서, 자장면 먹는 것이 좋아서 아버지 따라 골프장으로 도망갔던 5살 꼬마는 멋진 프로가 되고 국내외 정상에 오르며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골프와 함께했다. "시원섭섭하지만 그동안의 투어생활에 만족해요.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은퇴 후 계획은 세워두지 못했지만 방송, 지도자 등 여러 분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많은 분이 '이미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드 위는 아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가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시작할 이미나 프로, 필드 위에서만큼이나 강렬하게 빛날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

● 후배들에게 짧은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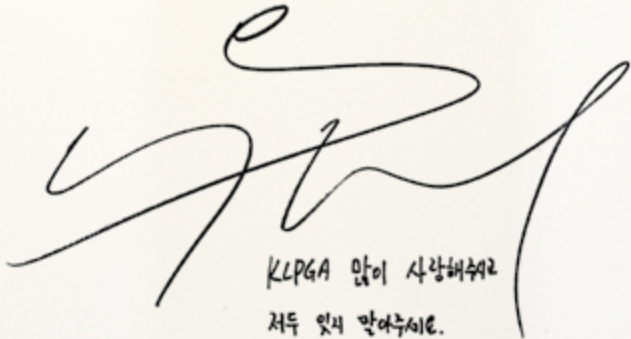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시야를 넓혀라

후회 없는 투어생활이 되려면 대화가 없을 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회장 주변을 여행한다든지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자신의 시간을 가지며 시야를 넓히는 거죠. 동료 선수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고요. 물론 경기 때는 대회에 집중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여유롭게 투어생활하길 바라요.

“

우승은 하고 싶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도,
동료들과 어울림도 편안해졌죠.
성적도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어요.
뒤늦게 깨달은 셈이죠.

”



KLPGA 많이 사랑해주고
저도 잊지 말아요!

이 미나 프로!



LAKE WOOD COUNTRY CLUB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1972년 5월, 로얄 컨트리클럽으로 출발해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새로운 이름과 함께 코스의 중설, 전면적인 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는 올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열린다. 다가오는 10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의 우승자가 결정되는 영광의 순간을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느껴보자.

글 _ 박지원 자료제공 _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메이저 대회의 향연이 펼쳐지다

2015년 'YTN·볼빅 여자오픈'에 이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개최하게 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올해도 KLPGA와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의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또다시 KLPGA와 함께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LPGA와 다시 인연을 맺게 해준 이번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은 11년째 열리고 있는 대회로 전통을 자랑한다.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메이저 대회이자 올해의 KLPGA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이기도 해 많은 갤러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갤러리와 선수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5천 대의 차량이 수용될 수 있도록 주차설비를 조성하고 양주시의 협조를 통해 차량 통제를 진행하는 등 최고의 메이저 대회를 개최하기에 힘쓰고 있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은 그 권위와 관심에 걸맞게 우승컵의 주인 또한 화려하다. 작년 대회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1타차로 단독 선두로 나선 전인지가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박인비는 3년 연속 준우승이라는 진기한 인연을 맺었다. 올해는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새롭게 열리는 데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종목의 금메달리스트 박인비가 참가하면서 새로운 메이저 퀸이 탄생할지 그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화려할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0월의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즐겨보자.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다시 태어나다

1972년 양주에 자리 잡은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을 만큼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로얄 컨트리클럽으로 시작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2005년 이름을 바꾸고, 클럽하우스를 준공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전면적인 코스 리모델링과 신(新)코스의 오픈, 코스명을 코스의 개성이 담긴 이름으로 바꾸는 등 로얄 컨트리클럽의 면모로 탈바꿈한 것.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포부를 담은 변화였다.

18홀의 규모로 시작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북코스 9홀, 신코스 9홀의 증설을 통해 현재의 36홀 레이크 코스(물길, 꽃길)와 우드 코스(산길, 숲길)로 자리매김했다. 추가 증설 이외에도 세계 최고 설계자인 데이비드 데일과 함께 36홀 코스 전체를 리뉴얼해 이전 코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자랑한다. 또한 '수면 위의 클럽하우스'라는 테마로 새롭게 오픈한 클럽하우스와 갤러리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의 주차장,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로 많은 갤러리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분리 운영 등 오래된 전통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노력과 끊임없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꿈꾸는 코스

증설과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코스를 선보이고 있는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레이크 코스와 우드 코스로 크게 나뉘어 있다. 기존의 지형을 살린 레이크 코스는 상벌타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티 샷을 어렵게 만드는 해저드를 없애고, 그린의 난이도를 높인 것이 특징. 반면 우드 코스는 드라마틱한 자연경관을 살린 계류가 함정을 만들고, 좌우로 뻗은 페어웨이를 통해 전략적인 퍼트를 요구한다. 두 코스 모두 인위적인 언돌레이션이 적어 도보로도 라운드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눈에 코스를 파악하기도 좋아 자연과 하나된 아름다움을 즐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두 코스 중에서도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열리는 우드 코스의 숲길,

산길 코스는 데이비드 데일의 현대적 코스 해석이 돋보이는 곳이다. 선수만이 아니라 가볍게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우드 코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전략과 샷을 구사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모티브로 삼은 것. 그의 철학에 따라 완성된 우드 코스는 천보산 줄기에서 흐르는 계곡의 물길을 살려 해저드를 만들고, 산자락의 우거진 빛나무와 단풍나무 숲을 감싸듯 좌우로 페어웨이를 나누어 조성했다. 직선적이고 탁 트인 기존의 단조로운 코스에서 벗어나 굴곡지면서도 나무들 사이로 숨어있는 우드 코스는 선수들의 도전 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모험적인 샷들이 우드 코스에서 펼쳐질지 기대해보자.



Travel

가을의 낭만이 녹아 있는 곳, 장흥아트파크

미술 전시와 문화 체험, 자연의 어울림이 함께하는 장흥아트파크는 양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아트파크에서는 미술과 전시와 체험 미술을 비롯해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어 오감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조각공원과 카페 사이에 어우러진 산책로와 놀이터는 낙엽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가을을 선사한다.

국내의 여러 문화기업들과 아틀리에가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콘셉트에 달라지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는 매달 색다른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예약 및 전시 소개는 장흥아트파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간편히 즐길 수 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을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장흥아트파크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장흥아트파크 _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8번지 장흥아트파크



차별화된 서비스, 앞서나가는 문화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4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선진 골프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른 골프장에 없는 천연잔디 위에 조성된 연습장과 수면 위의 클럽하우스, 갤러리를 위한 식음 서비스가 바로 그것. 이번 대회를 위해 레이크 코스 파4홀에 드라이빙 레인지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20타석을 기준으로 180m에 달하는 아이언 레인지도 완비해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이외에도 2005년 3천 평의 대규모 신축공사를 영화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클럽하우스와 클럽하우스 3층에 준비한 500여 평의 문화예술공간, 대회에 방문하는 갤러리와 선수들을 위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암 연회장 등 대회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차별화 서비스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갤러리를 위한 식음 서비스다. 선수만이 아니라 갤러리와 함께하는 대회인 만큼 코스 중간마다 먹거리를 준비하고 갤러리 프라자에 별도의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안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ourse | 코스 소개

레이크 코스는 스트레이트 홀과 페어웨이의 부드러운 언들레이션으로 홀과 홀 사이의 단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번 대회가 열리는 우드 코스의 산길, 숲길코스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코스로 곳곳에 숨겨진 연못과 계류가 전략적인 샷을 요구한다.

총면적 | 12,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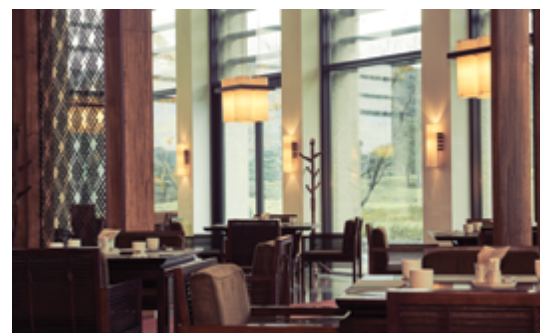
코스면적 | 우드 코스 18홀 72파 / 7,076yard

Mini Interview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 김국종 대표이사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차별화된 품격과 오랜 전통을 있는 명문 골프장으로 태어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에 보답 받듯 작년에 이어 올해도 KLPGA와 인연을 맺고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KLPGA 투어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기를 기대합니다.



산길 코스 파36 / 3,115yard

웅장한 해저드와 벵커가 장타를 요구하는 산길코스. 천보산을 바라볼 수 있는 오르막 경사와 그린의 좌우로 뻗어있는 긴 벵커로 이루어진 산길 코스는 정확한 거리감이 필수. 넓게 펼쳐진 페어웨이에 도전적인 샷을 치기 쉽지만, 숨어있는 해저드와 벵커가 선수의 기량을 시험한다.

숲길 코스 파36 / 3,355yard

소나무 숲 속에 조성된 숲길 코스는 홀 마다 가지각색의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마다 각기 다른 절경을 뽐낸다. 나무의 줄기에 작은 함정들과 티잉그라운드에서 시작되는 계류, 포대형식으로 솟아있는 그린 등은 선수들의 도전 욕구를 한껏 자극한다.

챔피언의 우승 DNA를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남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 스티븐 코비는 이를 정리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출간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가 이야기한 7가지 습관 중 '주도적이 되라'는 내용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2016 KLPGA 정규 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선수들, 특히 올해 우승을 경험한 프로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기분 좋게 여길 것이다. 더욱이 남과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상에 오르기 어렵기에 자신이 얻은 성공을 값지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챔피언이 된 선수들은 어떤 특별함(그녀들만의 습관, 장점, 비법 등을 모두 통칭)이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기자는 KLPGA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8억 원, 우승상금 1억 6천만 원)' 대회 연습라운드에서 올시즌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우승 코드를 들어 봤다.

사진·글 _ 강명호 KLPGA 명예기자

01

멘탈이 강하다

골프는 그 어떤 경기보다 정신력이 중요한 경기다.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한 김예진(21, 요진건설)은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벌타를 부여 받았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천성적으로 타고난 멘탈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우승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얘기해줬다. 박성현(23, 넵스) 역시 동료들 대부분이 뽑은 멘탈 강자다.

02

승부사의 기질

올시즌 2승을 거둔 장수연(22, 롯데)은 승부욕이 우승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선수가 갖고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선수마다 있으며 특히 챔피언으로 라운드를 할 때 최대로 발휘된다. 하지만 과도한 승부욕은 경기를 흐릴 수도 있어 스스로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03

감각이 배어있는 기술

골프는 퍼트 싸움이다. 올림픽을 제패한 박인비는 퍼트의 달인이라고 한다. 부단한 노력도 있었겠지만 타고난 감각도 곁들여져 있음에 분명하다. KLPGA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 조정민(22, 문영그룹), 그녀의 어머니는 "정민이는 어린 시절 퍼트귀신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감이 좋았다"라며 퍼트가 조정민의 우승 코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박성원(23, 금성침대) 역시 올해 퍼트감이 좋아 우승을 했다. 물론 전지훈련 때 퍼트만 집중 연습했다고는 하지만 감각이 남다른 이유일 거다.





04

골프에 대한 열정

“골프만 사랑하고 골프에만 올인하고 있다”라는 김해림(27, 롯데)은 그 열정이 우승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한 가지에 빠지면 몰입하는 그녀는 골프만 생각한다고 한다. 다른 선수들보다 늦게 시작해 악착같이 쫓아가기 위해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가득한 그녀의 골프 열정을 느낄 수 있다.



06

코스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소영(19, 롯데)은 올시즌 루키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 무대가 낯설 법도 한데 당차게 첫 승을 신고했다. 그 비결은 바로 코스 운영 노하우에 있었다. “지를 때 지르고 안전하게 가야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그녀는 연습 라운드 시, 어디지 복을 꼼꼼히 정리하며 이번 대회 코스 운영 전략을 그리고 있었다.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기술된 내용이 상식을 벗어난 특별함이 없듯이 골프 챔피언이 갖고 있는 우승 DNA에도 새로운 것은 없으며 오히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따라하지 못하거나, 연습만으로는 안되는 게 있다. 그래서 골프가 항상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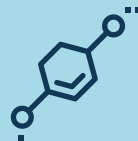
KLPGA를 접치다



05

빠른 습득력

프로 골퍼도 늘 배운다. 이승현(25, NH투자증권)은 좋은 프로 및 선생님을 많이 만난다고 한다. 그들로부터 배우는 게 많은 데 가르친 걸 습득하고 경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그만큼 우승에 가까워진다고 했다. 특히 쇼트게임을 잘하는 그녀는 배운 대로 될 때 자신감을 더 갖는다고 했다.



07

자기에 대한 확신

“유달리 잘 하는 게 없지만 스스로를 늘 믿고 경기를 한다”고 말하는 배선우(22, 삼천리)는 130여 명의 정규투어 프로 누구에게나 우승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한다. 매 순간 자신의 샷에 확신을 갖고 치는 게 중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날, 그 순간에 우승 트로피를 안게 되는 것 같다.

직원 마케터, 현장에서 마케팅을 경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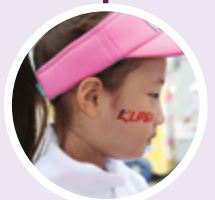


한국여자골프협회(이하 KLPGA)에서는 선수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마케터가 KLPGA를 위해 뛰고 있다. 올해 제2기 직원 마케터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마케터로, 협회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마케팅 플랜을 준비해 직접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모두가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KLPGA는 골프 마케팅을 보다 활성화하고 스포츠 마케터 지망생인 대학생에게 다양한 마케팅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마케터 제도를 운영, 기획하고 있다.



글 _ KLPGA 명예기자 박재환
사진 _ 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KLPGA 포스트





모든 투어를 적극적으로 참관하며 마케팅 플랜을 짜고 발표를 해온 객원 마케터는 9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하늘코스(6,578야드)에서 열린 KPGA투어 메이저대회 '이수그룹 제38회 KPGA 챔피언십'에서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PGA 이벤트존 부스를 운영했다. 나흘 동안 약 만 명의 갤러리에 마케팅과 서비스를 제공했고, 마케팅의 필수 요소인 현장 감각을 배양함과 동시에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인 KPGA를 위한 마케팅 플랜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

이번 이수그룹 제38회 KPGA 챔피언십에서는 유독 많은 선수가 팔과 다리에 스티커 타투를 하고 투어를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우승자 배선우 선수는 볼에 스티커 타투를 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스티커 타투 이벤트는 객원 마케터가 진행하는 이벤트 부스에서 진행됐는데, 많은 갤러리가 이벤트 부스를 찾아 스티커 타투를 부착하고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감상했다. 선수에게는 물론 갤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스티커 타투를 활용한 지속적 마케팅 활동이 필요해 보였다.

객원 마케터는 대회장 입장 전,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에게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응원문구 이벤트도 진행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갤러리에게는 상품과 함께 선수가 직접 답장을 해준다는 소식에 많은 갤러리가 개성 있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갤러리는 선수와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스티커 타투 이벤트와 함께 많은 갤러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회 그리기 이벤트'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모습이나 대회장 이모저모를 재치 있게 그려 전시하고, 재미있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상품을 주는 이벤트인데, 생각보다 많은 갤러리가 참석하여 그림 용지를 추가 주문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객원 마케터 김신동

객원 마케터는 자신들이 기획한 스티커 타투 이벤트, 응원 문구 이벤트, 대회 그리기 이벤트를 직접 현장에서 운영하며 갤러리의 많은 성원을 받았고, 예상보다 많은 갤러리가 참여해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필자는 객원 마케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신동 마케터를 만나 마케팅 기획을 실제로 운영하며 느낀 점들을 물어보았다.

Q.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이벤트를 생각하다 보니, '선수 응원문구 이벤트'와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 가장 간단한 것이 투어에 참여한 모두를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다. 간단한 이벤트여서 그런지 많은 분이 즐겁게 참여해주신 것 같다.

Q. 많은 갤러리가 참여해주었다. 인상에 남는 갤러리는?

골프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있었다. 자신도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응원을 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 했는데,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이벤트를 진행했다.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선 우리의 아이디어가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잘한 점이라 생각한다. 기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응원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전달해줄 수 못했다. 팬들의 목소리가 선수들에게 직접 다가갔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Q. 다음 이벤트에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나?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 팬들에게 투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싶다.

Q. 현재 바쁘게 KLPGA를 위한 마케팅 플랜을 기획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는지?

프레젠테이션 주제와 직접 연관이 된 점은 적지만 팬들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성향이였다. 또한, 골프팬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Q. 앞으로의 객원 마케터로서의 계획은?

일단 모든 팀원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마케팅 플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에서
객원 마케터는 자신들이 기획한 이벤트들을 직접 운영하고
많은 갤러리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냈다.
더불어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객원 마케터들에게 이렇듯 멋진 경험을 제공해주었으니,
앞으로도 KLPGA와 객원 마케터들이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나타낼지 기대가 된다.

사랑이는 내 마음의 ‘가을 감성’을 녹여줘!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가졌지만,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가을. 감성이 배가되는 계절이다.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추억에 잠겨

그때를 그리워하는 지금, 축 치지는 감정에 활력을 넣어줄 가을 문화 콘텐츠를 소개한다.

글 _ 김소현

연극

빨래



2005년 초연 이후, 10년 넘게 사랑받아온 창작 뮤지컬 <빨래>는 삶의 애환 속에서 인간애가 주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넘어진 주인공들이 희망을 품고 일어서기까지 옆에서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힘. 이들은 사회에서 억압받고 핍박받아 움츠러든 삶을 살고 있지만, 주변 이웃들의 힘을 받아 다시 일어난다.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소소한 감동을 전한다.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때론 가엽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거울을 들여다보듯 '공감'을 끌어낸다. 지친 나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연이다.

기간 : 2015.06.16. ~ 2017.02.26.
장소 : 동양예술극장

전시

반고흐 빛과 음악의 축제 인사이드



'반고흐 인사이드'는 이전 미디어아트 전시의 흥행을 이어 이번 전시는 제주에서 거대한 막을 올린다. 2D 개념의 일반 전시와 달리 전시 공간 전체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돼 명작의 탄생 배경 및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오감 만족의 감동을 선사한다.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곳에 고도화된 이미지와 영상 기술을 적용해 원작의 색감과 질감을 재현했다. 특히 가상(VR)현실과 증강(AR)현실의 기술을 접목해 방문객들이 반고흐와 직접 만나 교류하는 듯, 새로운 문화를 경험케 한다. 빛과 음악의 축제, 반고흐 인사이드로 초대한다.

기간 : 2016.06.17. ~ 오픈 런
장소 :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영화

우주의 크리스마스



똑같은 이름으로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명의 여자 성우주의 기적을 담은 드라마로 서로가 시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삶의 희망을 공유한다. 이루지 못한 꿈을 간직한 서른여덟 성우주가 자신의 과거와 닮아있는 열아홉 성우주와 스물여섯 성우주를 우연히 만나며 현재의 그들을 보듬어주며 영화의 스토리는 시작된다. 성우주의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했던 지난 흔적을 더듬고, 놓쳤던 꿈과 사랑을 향해 작은 기적을 조연해주며 희망을 꿈꾸며 만들어 가는 세 여자의 인생 이야기. 골동품 가게를 카페로 변신시키면서 겪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시 : 2016.10.06. 개봉
주연 : 김지수, 허이재, 심은진

솔병원 이 알려주는 골퍼를 위한 골프 피트니스

몸의 중심 '척추' 골프 동작별 사용되는 근육과 척추 예방 운동 I

글 _ 나영무(솔병원 원장)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척추뼈는 복잡한 모양 사이의 뼈를 지탱해 주는 근육들이 서너 겹 겹쳐있으며 서로 꼬여있다. 여기에 위아래로 이어지고 갈비뼈로 이어지는 근육 덩어리가 붙어있다. 골퍼는 대칭 운동 같지만 한쪽 방향을 유독 많이 쓰게 된다. 백스윙 때에는 위쪽 등척추의 꼬임이 있지만 팔로우스루 시에는 아래쪽 등 척추(허리)의 꼬임이 더 발생한다. 이런 동작이 반복되면 한쪽 근육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 근육이 발달하고, 안 쓰는 근육은 퇴화하면서 짧아진다. 결국 좌우 균형이 깨지며 급기야 척추를 휘게 하고 척추와 연결된 골반도 틀어지게 된다. 특히 연습장에서 공이 안 맞는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공을 치다 보면 근육, 척추들이 실 틈이 없어 근육과 뼈가 다 지친다. 결국, 등 척추가 휘고 아프게 된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이 뭉치고 척추관절이 틀어지며 관절이 부딪혀 아프게 되고, 인대 역시 꼬이면서 늘어나 아프게 되며 디스크를 유발한다. 이번 장에서는 골프 동작별 사용되는 근육과 척추 손상을 예방해 주는 운동을 소개한다.

솔병원은 KLPGA 공식지정병원으로서 KLPGA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각 투어별 전 대회)에 전담 의무팀(앰블런스 1대, 간호사 1명, 트레이너 1명)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부상 예방 및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Medical Service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정규투어 메이저 대회에는 전문의 1명과 의료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한다.



1 앉아서 다리 모으기 운동



- **방법** : ①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넣고 머리 뒤로 손을 교차하고 가슴을 들어 허리를 곧게 세우고 준비한다.
②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조이며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무릎을 조일 때에 배에 힘을 주거나 골반을 뒤로 빼지 않는다.

2 벽에 기대고 무릎 구부리기



- **방법** : ① 발을 골반 너비로 벌려 벽에 기대고 서서 준비한다.
② 상체를 벽에 기대고 무릎을 접어 90도까지 내려가서 1분간 유지한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 **Point** : 3세트 실시한다.
상체는 힘을 빼고 날개뼈와 등이 벽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발바닥 전체의 힘을 주어 벽 쪽으로 상체를 밀고 유지한다.

3 골프공을 이용한 족저근막 마사지



○ 방법 : ① 요가매트 위에서 발바닥에 골프공을 깔고 앞뒤로 누르면서 마사지하듯 움직인다.

✖ Point : 좌우 100회 실시한다.

발가락뼈 사이사이로 골프공이 지나가듯 마사지한다.

처음에는 통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실시하며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는다.

4 다리 좁게 벌려 무릎 구부리면서 앉기



○ 방법 : ① 골반 너비로 다리 벌려 서서 팔을 교차하여 어깨 위에 올리고 준비한다.

②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90도 접어서 내려간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무릎을 조일 때에 배에 힘이 가거나 골반을 뒤로 무너뜨리지 않는다.

5 누워서 몸통비틀기 스트레칭



○ 방법 : ① 매트 위에 옆으로 새우잠 자세로 눕는다.

② 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다른 팔은 등 뒤로 넘겨서 서서히 떨어지도록 한다. 이 상태로 3분간 유지한 후 반대로도 한다.

✖ Point : 좌우 3세트 실시한다.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 허리를 굽혀서 너무 많은 회전이 허리에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

6 폼 롤러를 이용해 몸통비틀기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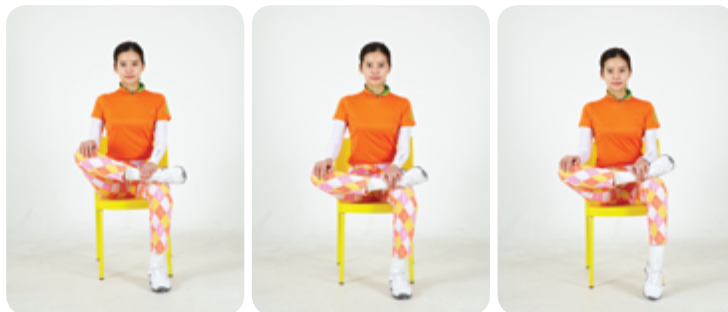
○ 방법 : ① 옆으로 누워서 폼 롤러 위에 무릎을 올린다.

② 아래 손은 천장 방향으로 밀고 다른 손은 등 뒤 방향으로 내려서 1분간 유지한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좌우 3세트 실시한다.

상체의 회전 시에 무릎이 폼 롤러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주의한다.

7 의자에 앉아서 고관절 운동



○ 방법 : ①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골반과 허리를 세우고 준비한다.

② 올린 무릎을 다리 힘으로만 바닥방향으로 누르고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1분간 유지한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3세트 실시한다.

손으로 심하게 누르거나 골반을 뒤로 넘겨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8 밴드를 이용한 앉아서 몸통 돌리기 운동



○ 방법 : ①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밴드를 두 손으로 잡고 허리를 세우고 준비한다.

② 허벅지 안쪽 근육을 조이면서 상체 힘으로만 상체를 회전한 후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Point : 좌우 10회, 3세트 실시한다.

골반과 무릎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허리를 굽혀서 허리의 회전을 만들지 않는다.

11월호에 이어집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 절세 혜택이 큰 ‘연금저축하기’



연말이 다가올수록 절세혜택이 큰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연금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이를 3종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을 추가하여 4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회사가 노사합의 때문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소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 등 세금을 내는 가입자에 대해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제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불입할 때 세액공제, 운용할 때 과세이연,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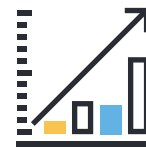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불입액의 최대 연 400만 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에 따라 다른데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 최대금액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의 16.5%인 66만 원,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 원의 13.2%인 52만 8천 원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 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 기준으로 드리고 있어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수시입출금 상품인 MMF나 단기 채권형 펀드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DB, DC)을 운용하고 있는 직장인은 추가로 개인형 IRP에 가입하여 최대 연 700만 원에 대해서 연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운용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자산을 찾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을 운용하여 생긴 목돈을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일시에 찾아갈 경우 기타소득세 16.5%로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의 취지를 살려야 혜택이 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풍요로운 미래 만들기

당사에서 연금저축펀드계좌에 가입하시면 300여 개의 다양한 펀드로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투자성향별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금저축계좌의 펀드매매, 잔고조회, 수익률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목표수익률 알림, 매월 정기적인 펀드 잔고 통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 원까지 불입을 합니다. 연간 4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만, 아무 준비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예쁜 딸에게,

오지현 아버지가 보내온 따뜻한 편지

청춘을 즐겨야 할 스물한 살의 나이에
어엿하게 프로의 길을 걷고 있는 딸이
너무나 대견하다는 아버지.
매일 매일이 가슴 설레는 투어 생활을 즐기길 바라는
오지현 아버지가 따뜻한 편지를 보냈다.



사랑우체통

선수 부모님들!

평소에 딸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기회를 드립니다.

딸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말이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편지 한 편은 'KLPGA members'에 실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편지와 함께
딸과 찍은 추억의 사진이나 감동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수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현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골프와 함께 훌쩍 지나가버렸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길고도 힘겨운 시간동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널 보면서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던 건 널 강하게 키워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고 믿었던 못난 이 아버지의 이기심이었던 것 같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너의 손을 잡고 무작정 골프장으로 향했던 아버지의 선택이
원망스럽고 미지는 않았는지?

딸아! 오늘의 네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힘겨움에 또 얼마나 아파했을는지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럼에도 이토록 멋지고 예쁘게 잘 커주고 잘 견뎌준 내 딸!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구나.
딸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이토록 큰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스물한 살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버린 내 딸아!
친구들과 어울려 캠퍼스에서 온종일 조잘대고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껏 하며 청춘을 불태울 나이에
프로골퍼라는 또 다른 이름표를 달고
매주 힘겹게 너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하는구나.

딸아! 힘든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는 게 인생 아니겠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네 앞에 펼쳐질 날들이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보렴.
선수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매일 매일이 늘 새롭고
가슴 설레는 순간으로 너에게로 다가오기를 기도하마.
넌 우리가족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분들에게도 늘 바르고 소중한 선수로 남아주길 바란다.

지현아!
초심을 잃지 말고 곧은길을 가거라.
널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단다.
가슴 깊이 사랑한다, 내 딸 오지현!

2016년 9월의 어느 새벽녘에 아버지가





영어
JOE 류(조 류) 강사



일본어
김수진 강사



중국어
채 민 강사

A Hi Jerry! What do you think about my fashion today?
안녕 제리! 오늘 내 패션 어떤 것 같아?

B Honestly, I think your clothes are too baggy.
Baggy style is out of trend.
솔직히 너무 헐렁한 것 같아.
헐렁한 스타일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

A Then, what should I wear?
그럼 난 뭘 입어야 하지?

B I think you match well in formal clothes.
And you should throw on a jacket too.
내 생각엔 포멀한 옷이 너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자켓도 걸치고.

A Thanks. I'll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Maybe I'll stop by the mall this weekend.
고마워. 고려해볼게.
아마도 이번 주말에 쇼핑몰에 가야겠다.

B I'll tag along too.
나도 함께 갈게.

A このスカート、ダサくないんですか。
고노 스카프, 다사꾸 나인데스까?
이 스커트, 촌스럽지 않나요?

B 今年(ことし)、流行(はや)りのシトロな柄(がら)ですよ。
고토시, 하야리노 레토로나 가라데스요.
올해, 유행하는 레토로 스타일 무늬예요.

A えっ、シトロって何(なん)ですか。
옛, 레토로때 난데스까?
네? 레토로가 뭐예요?

B 懐(なつ)かしさを感じ(かん)じる昔風(むかしふう)のファッションのことですよ。
나쯔까시사오 간지루 무까시후노 핫손노 고평데스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복고풍의 패션을 말해요.

A それにしても、厚(あつ)くないですか。
소래니 시떼모, 아쯔꾸 나인데스까?
그렇다 해도 두껍지 않은가요?

B ちょっと厚(あつ)いけど、冬(ふゆ)のトレンドを先取(さきと)りしないね。
쫘또 아쯔이께도, 후유노 토렌도오 사끼도리 시나이또네.
조금 두껍지만, 겨울 트렌드를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지.

A 这周末我想去百货商店买衣服, 你也一起去吧!
zhè zhōumò wǒ xiǎng qù bǎihuòshāngdiàn
mǎi yīfu, nǐ yě yìqǐ qù ba!
이번 주말에 나 백화점 가서 옷 사고 싶은데,
너도 같이 가자!

B 好。听杂志说这个秋天流行色调柔和的灰色和红色。
hǎo. tīng zázhì shuō zhè ge qiūtiān liúxíng
sèdiào róu hé de huīsè hé hóngsè.
좋아. 잡지에서 이번 가을엔 톤 다운 그레이와 레드가
유행이래.

A 是吗? 那我买柔和红色的。你呢?
shì ma? nà wǒ jiù mǎi róu hé hóngsè de. nǐ ne?
그래? 그럼 나 톤 다운 레드 옷 사야지! 너는?

B 我想买喇叭袖的衬衫。
wǒ xiǎng mǎi lǎbaxiù de chènshān
나는 커프스 셔츠 사고 싶어

A 好啊。我帮你选灰色的吧!
hǎo ā. wǒ bāng nǐ xuǎn huīsè de ba!
좋아! 내가 그레이 색상으로 골라 줄게!

B 好期待啊! 那我们不见不散!
hǎo qīdài ā! nà wǒmen bújiàn bùsàn
정말 기대된다! 그럼 우리 그때 만나자!

자료 제공 파고다스타(www.pagodastar.com)

틀린그림찾기

66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lpga)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99



사진 속 틀린 부분 세 곳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지난 9월호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김태진 님에게는 KPGA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LPGA TOUR 2016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 · 점프 · 챔피언스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LOTTE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맑고 깨끗함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맑 고 개 끓 한
칠성사이다

롯데칠성음료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